

융합경영리뷰

한 국 을 대 표 하 는 융 합 경 영 매 거 진

**경영인과
아름다운 정상**

**WHO IS A
RESPECTED
ENTREPRENEUR?**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생활 속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업경영에도 역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융합경영 리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영학과 이외 관련된 제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경영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contents

에디터 컬럼

1 경영인과 아름다운 정상

주제 컬럼

3 아름다운 정상(頂上), 그들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_ 박병태

9 세상을 바꾸는 기업, 기업가정신 _ 김강희

12 아름다운 정상의 자리, 그대가 먼저 차지하라 _ 황재일

사이버경영

16 SNS, 유튜브, AI 및 오픈 AI에서 저작권침해 이슈 _ 메타 사피언스

휴먼경영

31 과연 다양성이 창의력을 발휘할까? _ 이종구

33 자폐성장애인의 disorder의 원인 _ 강은희

37 초고령사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_ 이영기

역사경영

43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의 단상: 애덤 스미스의 생각대로 애덤

스미스를 이해해보자 _ 김승범

경영에세이

47 세계일주기행: 유럽 편-영국을 가다 _ 이규형

융합경영 리뷰_2023년 7월호(NO.49)

발행일 2023년 7월 1일

발행처 지식플랫폼

발행인 김주연

편집위원장 엄재근

편집 그라펠스

디자이너 M.S.G.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15층 1512호

이메일 bookplatform@naver.com

팩스 02-6499-4370

광고 문의 '융합경영 리뷰'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

bookplatform@naver.com / 010-6839-4970



경영인과 아름다운 정상

일반적으로 '경영인'이라고 하면 기업을 이끄는 기업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한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영인은 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나라의 부유함이 기업의 성과에 의존되고 또 기업의 성장·발전이 경영인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경영인의 역할이 컸다.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에는 이병철이 있었고,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행하고 있는 현대에는 정주영이 있었고, 세계 가전 시장을 선도하는 LG에는 구인회가 있었다. 이들은 이미 정상에 올라섰던 경영인들이다. 이 밖에도 열거할 수 없이 정상에 선 경영인들이 많다.

경영인은 성공한 창업주 혹은 기업가정신 사례로 많이 이야기된다. 아름다운 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에 열거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이룬 경영인을 말하지 않는다. 보통 경영인을 설명할 때, 아름답다는 표현보다 성공, 투자, 돈에 대한 열정 등을 이야기한다.

최근 한국도 ESG 경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사회는 기업에 대해 성공, 투자, 돈에 대한 열정 등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기업에 아름다운 성공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서 성공하는 기업보다 정직한 과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요구하며, 해당 기업의 경영인에게 아름다운 정상에 설 것을 요구한다.

경영인이 아름다운 정상에 서는 것은 쉽지 않다.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아름다운 정상에 오를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사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름다운 정상을 말한 경영인들은 많았다. 그리고 포장하는 경영인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를 진정성 있게 실천한 경영인들은 많지 않았다.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Business Review



한국에서 아름다운 정상에 섰던 경영인은 누가 있었을까?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를 이야기하고 싶다. 유일한 박사는 평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에서 수학하고 돌아와서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의약품과 생활용품 등의 매출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켰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하고, 직원 복지후생시설을 지었다. 해방 후에는 윤리경영과 모범납세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였다.

ESG 시대에 대한민국이 ESG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박사와 같이 경영인으로서 아름다운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부러워한다고 우쭐하기보다 아름다운 정상에서 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SG를 주도하는 한국에서 아름다운 정상을 꿈꾸는 경영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융합경영 리뷰 편집위원장

아름다운 정상(頂上), 그들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박병태



기업에서 최정상(最頂上)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며, 무엇이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들을 기업가나 창업자, 경영인, CEO 등으로 부른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학자나 운동선수들과 다른 영역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진 독특한 DNA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 한다.

그런데 용어의 의미보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들은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것이다. 기업가정신을 키워드로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검색하면 2023년 6월 현재 2,402건의 논문이 검색된다. 구글 학술검색에서 'entrepreneurship'으로 검색하면 302만 건의 학술자료가 검색된다. 셀 수 없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로 꿰뚫어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통찰한 것만 살아남는다!”**

★★★★★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로 꿰뚫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공자의 일이관지(一以貫之)처럼 저자가 터득한 다양한 경험과 직관을 토대로 6가지의 통찰 습관을 제시한다.

- 박형주(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 아주대 16대 총장)

★★★★★

이 책은 복잡한 세상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나에게도 정신이 번쩍 드는 매력적인 책이다.

- 윤은기(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

4차산업혁명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통찰에 이르는 방법론을 터득하고 혁신의 무기를 장착하게 될 것이다.

- 구정원(가톨릭대학교 보건교과경영대학원장)

★★★★★

차별화된 고객경험 관리의 기업 운영의 기본이 되었다. 박병태 박사는 통찰을 통해 고객 경험의 새로운 실천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 장익환(LG전자 부사장)

다. 개인마다 다른 특성과 환경이 작용해 낳은 결과를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무모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업가나 기업가정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글에서는 방대한 연구 자료와 수없이 떠오르는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으로 그 끝자락이라도 잡아보고자 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기업가(Entrepreneur)는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 ‘Entreprenedre’에서 유래된 말로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가(entrepreneur)에 대하여 ‘企業家(Businessman, Owner)’인지 ‘Entreprenedre’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起業家’인지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起業家’보다 ‘企業家’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그런데 企業家들이 정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사람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企業家란 ‘이윤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또는 Manager)에 가깝다. 이들은 본인이 사업을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창출을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임용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서 의미하는 기업가에 일부 충족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기업가(entrepreneur)에 부합하는 사람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므로 ‘起業家’라는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의미로 ‘모험이 필요하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참신한 사업이나 투자의 대상’을 의미하는 벤처(Venture) 등의 ‘創業家’로 볼 수도 있겠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기업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사

회문화연구소에서는 '이윤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본의 소유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기업교육학회에서는 '사업체를 설립, 조직, 관리하고 내포된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으로 주로 1세대 경영자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들 주장 역시 하나는 CEO의 개념에 가깝고, 하나는 entrepreneur에 근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起業家'의 관점과 한국기업교육학회의 정의에 좀 더 많이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것도 개인 생각일 뿐이다. 기업가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아직도 기업가(entrepreneur) 또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한 가지 이슈는 그것이 CEO이든 entrepreneur이든, 대부분의 주장과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소수의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들 또는 이들이 가진 정신은 과연 그들 소수에게만 있는 것이며 그들만이 가진 특성일까?

기업가나 기업가정신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실제 구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만 소수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그들을 연구하고 언급한 사람은 누구인가?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큰 획을 그은 연구자를 보면 먼저 조지프 슈페터(J. A. Schumpeter)를 들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재화와 생산, 기존 재화의 품질향상,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원료와 부품의 새로운 공급원 획득, 새로운 산업조직 형성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에 의해 발전한다."는 주장을 통해 자본주의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를 유발하는 혁신활동을 하는 자'라고 주장하며,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에 대해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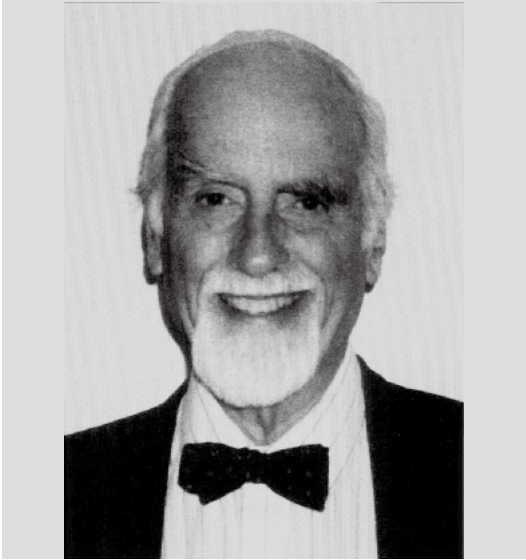
슈페터



티몬스

또 한 명의 대표적인 학자인 제프리 티몬스(Jeffrey A. Timmons)는 창업 초기과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로 '창업 기회', '자원', '팀', '창업가'를 언급하였다. 즉, 창업(創業)이란, "창업 기회를 발견하고,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 기회를 실행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여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정신”을 기업가정신이라 하였다.



맥클랜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은 ‘새로운 기회’, ‘개척’, ‘위험 감수’, ‘사업화하는 자세와 정신’이다. 그렇다면 기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기회는 위기와 변화의 틈새에 있다.”는 말처럼, 변화가 없다면 기회도 없다. 변화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사업화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라면 그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업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의 공통적인 요인은 ‘실제 기업을 일으킬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기업가는 창업에 도전하고 열정

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도전정신, 열정,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데이비드 맥클랜드(David McClelland)의 연구에 따르면,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자발성)이 필요하다. 성취욕구란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포부, 노력 및 지구력, 개인생활은 물론 조직의 성과과도 밀접히 관계있는 요인이다.

기업가들은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다. 또, 기업가들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존 조직에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시장 또는 기술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려는 성향인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위험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맥클랜드는 “위험감수성이야말로 기업가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기업가와 경영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하였다. 기업가가 가진 진취성은 변화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경쟁환경에 대응하는 창업가의 태도와 관련된 성향으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경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경쟁사를 제압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말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기업가에 대하여 빅터 기암(Victor Kiam)은 “기업가들은 장애와 기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장애와 기회 둘 다 이점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정말로 맥클랜드의 주장처럼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자발성)이 있으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것들은 오히려 2차적인 문제이다. 진정한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의 시작은 다른 것일 수 있다. ‘한번 일으킨 기업이나 사업은 영원히 잘 유지되고 성공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른 기업가정신 DNA가 있지 않을까?

기업가정신을 갖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고, 일으킨 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기업가 또는 기업가정신의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변화는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하였을 때,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에미상 수상자인 프랑크 세스노(Frank Sesno)는 “더 많이 질문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였다.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겠는가? 기회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질문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렉 옴(Greg Orme)이 자신의 저서 『휴먼 엠티』에서 말한 것처럼,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인간의 초능력이라 할 수 있는 호기심”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호기심으로 인하여 왜 그런지 질문하고, 질문이 곧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누군가가 일으킨 사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인간이 만든 모든 생산물의 원인은 인간의 생각이고, 그 생각의 출발은 호기심을 통한 질문이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의 출발은 곧 질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일으킨 사업이나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속적인 추진력이다. 열정의 의미와는 다르다. 지속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정신에 기름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열정이다. 다만 에너지가 주입되었어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거나 나아가고자 하는 추진력이 없으면 에너지는 활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력과 지속가능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나 사업이 존경받아야 한다.

누가 존경받고 누가 외면당하는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업가의 최종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경제적인 부’를 달성하는 것인



환경을 생각해 자사의 새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는 광고로 유명한인 파타고니아

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룩하는 것인가? 둘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기술적인 진보를 이룩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회공익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존경받는 기업가 또는 기업이 될 수 없다.

이나모리 가즈오를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부른다. 파타고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존중 받는 기업이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타주의가 있고 환경 문제를 진심으로 실천하는 철학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업가 또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단지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나 돈을 만드는 기계와 다를 것이 없다.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가 마켓 3.0을 통해서 주장한 기업의 사회공헌과 고객중심의 사고방식, 피터 드러커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이라고 했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가치경영으로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 사조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기업가에게 제일 중요한 DNA이면서 필수인 항목은 사회에 대한 기여와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미래에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은 무엇인가?

COVID-19 엔데믹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라고 이구동성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업에게 위기인가, 기회를 포착할 때인가? 모든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으면 기업가이고, 지금이 위기라면 지금이 바로 기업가정신이 제일 많이 발현될 때이다. ESG 경영은 요인별 점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최고의 격전장이다. 생성형 AI는 기존 사업의 종말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플랫폼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기심을 통한 질문을 시작하고,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자발성)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비즈니스를 일으킨 후, 지

속적인 추진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사회를 위한 공익적인 역할과 이타주의를 발휘하고, 다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윤리적인 접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으로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AI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업하여 제3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업가정신에 추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병태 교수/경영학 박사

현)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연구교수
현)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연구소 소장
현) 한국병원경영학회 대외협력부회장
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보건정책실 국장
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개원 준비 사무국장
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개원 준비 사무국장
저서 「통찰의 도구들」, 「인사이트 좀 있는 사람」
「문화가 성과다」(공동 번역)

세상을 바꾸는 기업, 기업가정신

김강희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기업가들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화려한 직업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커리어를 원하고 있다.

직업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집을 장만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우수한 수준의 자녀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올리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부심을 느끼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왜 그렇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찾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 최고의 벤처캐피털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제프 버스갱(Jeff Bussgang) 하버드비즈니스스쿨 교수는 한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이 내게 휴지를 판다고 하면 사기 싫다고까지 하였다.

한 인재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세상을 바꾸는 기업과 기업가정신을 내가 20년째 몸담은 LG그룹의 '정도경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정도경영은 LG그룹이 1990년에 선포한 경영현장에 나타나 있다.

인간 존중의 경영에 의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고객에게 배우며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고객과 함께 발전한다.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인재육성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LG는 세계의 일류기업으로 영속적으로 발전한다.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조지프 슐페터

슐페터는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거나 기술 수준을 높여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혁신은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이며 끊임없이 기존의 체계를 부수고 새로운 체계를 쌓는다고 정의한다.

에어비앤비의 세 창업주의 아이디어는 세상의 비웃음을 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투자자 콜 그레이엄은 심지어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혹평했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빌려준다고? 에이, 그게 말이 돼?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그걸 누가 믿고 와?

이들에겐 한 명의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한다. 책임과 신뢰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이들의 진취적인 도전은 성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혹평했던 폴 그레이엄의 투자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경쟁자들보다 앞서 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고지를 선점한 진취성. 이것이 세계 최초의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탄생시켰다.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혁신이 있다. 2016년 전 세계

가 주목한 대결.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게임 중 하나인 바둑에서 인간의 사고체계를 모방하여 만든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을까? 결과는 인공지능의 승리. 하지만 이는 곧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인간의 승리였다.

타사 베스는 대국 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인공지능으로 풀어내는 것이 다음 목표라고 말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 데미스 하사비스. 그를 이끈 힘은 바로 혁신의 힘이다.

기업가로서 때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1980년대 계속되는 실패를 책임지고 애플을 떠나야만 했던 스티브 잡스. 그러나 잡스 없는 애플은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벼랑 끝에 선 애플에 잡스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승부수를 던진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잡스는 애플의 주력 사업들을 모두 중지시키고 MP3 플레이어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애플만의 독자적인 감성을 담은 제품을 탄생시킨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향해 걸쭉한 스티브 잡스. 그렇게 애플은 새로운 아이콘이 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기업가정신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에게만 필요할까? 세상을 바꾼 수많은 위인들에게도 기업가정신은 있었다.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 기업가정신. 우리 모두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김강희 경영학박사
현)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경영혁신팀 수석부장
한국인공지능협회 전문위원
Master Black Belt

IPS산업정책연구원 산업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문위원
전)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초연결, 초지능, 초디지털이 핵심인
글로벌 대전환 시대,

“누가 주도할 것인가?”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 기업가정신으로 융합하라”

K-Entrepreneurship

조규연, 탁진규, 임재근 지음

코로나19가 만든 팬데믹, 글로벌 위기의 시기 K-방역, K-컬처, K-푸드, K-바이오 등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기업가정신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또한, 전 세계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며, 21세기 IT 최강국이다.

많은 학자는 기업가정신은 혁신적 창업의 근간 이고,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K-앙트프리너십(한국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주도해야 한다.

아름다운 정상자리, 그대가 먼저 차지하라

황재일

‘아름다운 의식’에 대하여

오늘은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다. 여간해선 비가 잘 안 오는 원주의 우리 동네도 새벽부터 제법 세찬 비가 내렸다. 덕분에 어제는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오늘 아침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칼럼 쓰기에 아주 쾌적해졌다. 감사하는 마음이 새삼 차오른다.

사실 내가 이렇게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는 데는 나름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달 본지의 주제인 ‘아름다운 정상’과 관련하여 내가 하고픈 이야기의 핵심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또 그저 두서는 없겠지만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나름 축적된 삶의 경험들을 열심히 풀어놓아 보겠다.

사실 저 ‘아름다운 의식’이란 표현은 내가 본 지 2021년 7월호에 실었던 칼럼에서 이미 제목으로 잡고 소개한 바 있다.¹ 하지만 이미 2년이나 지났기에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독자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 여기서 조금 반복을 해도 괜찮으리라 믿어본다.

내가 이 표현을 인상 깊게 접한 것은 한 책을 통해서였다. 역시 앞에서 언급한 칼럼에서 잠깐 소개했던 내용을 반복해본다.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

밀』²이란 제목의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인도 출신의 부부인데, ‘전 세계 수많은 CEO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삶에 혁명 같은 변화를 일으킨 오앤오(O&O) 아카데미의 설립자이자 스승’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 대해 저 책뿐만 아니라 그동안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운 바들을 요약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역시 2021년 칼럼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한다.

“첫째,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나와 타자의 경계가 허상이라는 궁극의 진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창조주인 근원적 의식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다.

둘째,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의 상태이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타인, 그리고 모든 만물에까지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간다. 위 첫 번째 자각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특히 필자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아채기 위한 기준으로 내 안에 ‘불평’과 ‘원망’ 등의 부정적 정서가 떠오르는지 아닌지를 살펴본다는 점을 소개하고 싶다. 심지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시적 ‘고통’을 겪을

1 본지 2021년 7월호에 「아름다운 의식과 ESG 경영」이란 제목의 글로 소개되었다.

2 부제: 아름다운 마음의 혁명은 어떻게 오는가; 프리타지, 크리스나지 지음; 추미란 옮김; 김영사; 2020년 1월 25일 출간

때조차, 그 고통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절대 짜증을 내거나 저항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게 어찌 가능하냐고 반문하고 싶은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15분씩 명상을 하다 보니 그게 가능해져 가고 있다는 증언을 그대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다.

셋째, 위 두 번째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내면의 평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내 삶 속에서의 구체적 경험들

이제 내가 이번 칼럼의 도입을 날씨 이야기로 한 것과 연결해보자. 남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소할 지도 모르겠지만, 나 자신으로선 아침부터 또 '동시성'³의 기적을 느끼고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이다. 지난 주말엔 서울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이 칼럼을 쓸 여유가 없었고 월요일 아침부터 도전하겠다 맘먹고 있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도와주고 있다고 나는 느끼는 것이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내가 이 칼럼을 쓰고 있는 내 서재의 환경에 대해 잠깐 자랑질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지난 2021년 10월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오게 된 배경은 말 그대로 여러 번의 기적 같은 '동시성' 사건의 발현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이미 일기를 통해 써놓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는 것을 양해 바란다.⁴

“자, 이제 새로 이사한 아파트 자랑 좀 해주자.

3 '동시성'이란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1년 4월 필자의 칼럼 「융합의 범위를 확장하라」에 수록되어 있다.

4 가만 생각하니 이와 유사한 이야기도 나의 2021년 12월 본지에 게재한 칼럼 「기적보고서」에서 이미 한 바 있다. 철순이 된 노인의 전형적 특징 중 하나이니 양해 바란다. :)

나는 나의 드림북(Dream Book)에 우리 노부부가 엘살바도르에서 귀국한 뒤 자리 잡고 살게 될 집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두었다.

숲이 보이는 서재와 거실
30평 내외의 아담 사이즈
방 2~3개, 화장실 2개
산책길과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조용한 환경
주거비 월 지출이 100만 원 이하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이사한 새 집은(실제로도 새로 지어서 첫 입주한 '신땀' 아파트이다.) 위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는 곳이었다. 나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실 내 일기에는 저 여섯 가지 조건 하나하나에 대한 자랑질을 해놓았지만 여기서 다 소개하면 독자들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를 해칠 염려가 있으니 그만 생략하고 그저 내 서재 사진만 보여드릴까 한다. (이미 2021년 12월 칼럼에서 비슷한 사진을 소개한 바 있지

만 다시 보여 드린다.) 이번엔 비 오는 창밖 정경을 포함했다. 바로 저 사진 속 책상 앞에 앉아서 지금 이 칼럼을 쓰고 있다.

자, 다시 이런 개인적 사례와 오늘 주제를 연결시켜 보자. '아름다운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순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의식을 매일 훈련한 덕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경영인들에게 권하는 마무리 글

이제 '경영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일전에 소개했지만 나는 30~40대의 17년간은 직장인으로, 그리고 후반 50~60대의 또 다른 17년간은 나름 경영자로서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몇 마디 말할 자격은 최소한이나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차가운 현실을 먼저 토로하자. 예전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지인들이나 젊은 후배들에게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리더나 상사를 얼마나 만나보았느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다. 그러니 우리가 표현하는 '아름다운 정상'이란 호칭을 들을 만한 인물들이 우리 동시대에는 말 그대로 '시중에서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닌가요?

그러나 나는 소위 '마음공부'를 5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저런 현실조차도 긍정의 마인드로 해석하는 습관이 자리 잡은 듯하다. 우리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일진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100점짜리는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정상'이라는 명예스러운 호칭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후

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복잡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훈련만 하면 된다는데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

리더의 자리에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긍정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 삶이 '동시성'의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 것인가?

요즘 나는 정녕 '절대 평화, 절대 자유 그리고 절대 풍요'를 누리는 일상을 누리고 있다. 최근에 읽은 『오래된 질문』⁵ 중에서 도법 스님의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했다.

"현대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지구만 한 곳도 아직 못 찾아냈고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지구가 그만큼 대단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합니다.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든 일상이 신비이고 불가사의입니다."

참으로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해 동의하는 주장이다. 물론 현역에 몸담고 있으면서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 그대에게겐 뜬구름 잡는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간절하게 권하건대 지금부터 마음공부를 시작해보기를 바란다. 나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명상의 시간을 가진 후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마디 구호를 외친다.

5 부제: 내 안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인생의 지혜를 찾아서, 다큐멘터리 Noble Asks 제작팀/장원재 저자(글), 다산초당, 2021년 5월 12일

“오늘도 아름다운 의식으로 하루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마음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아름다운 정상’의 자리에 있는 독보적인 그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약속드린다. 혹시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내게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힘을 다하여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영인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황재일 경영학박사
현) 유튜브, 컬럼니스트
현) (주)나도주게 경영고문
전) 엘살바도르 교육부 자문관
(정보통신산업진흥회/NIPA 파견)
전) 성신여대/aSSIST 겸임교수
전) 베스트러닝 대표
전) 한국IBM 컨설팅 전문위원



뒤늦은 나이에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금융 트레이딩에 뛰어든
아마추어 FX 트레이더의 7년간의 기록!

황재일 박사의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 성공기」 이북 출시

‘바보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저자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금융시장에서
험난한 모험을 통해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자신만의 성배!

바보 연금술사의 투자 성공기
그 이야기속으로 초대합니다!



SNS, 유튜브, AI 및 오픈 AI에서 저작권침해 이슈

메타 사피언스



1. 프롤로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최신 유행하는 노래, 영화, 취미, 게임, 스포츠, 패션 등을 보고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SNS 미디어를 활용하여 놀이

와 창작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기업도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비례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부터 영업이나 제품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모든 권리를 총칭하기에 그 범위가 넓다. 아울러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②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 혹은 그 승계인의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저작권은 16세기 영국에서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앤 여왕법’으로 시작됐으며, 19세기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속해 있던 국제 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협약으로 구체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삼고 있다. 단,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

1-1. 저작권 개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것, 그리고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일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우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

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과 구분될 정도의 저작권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하며(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표현이 된 것이라면 방식은 불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유체물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저작물이 창작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소위 “무방식주의”에 따른 것이다(송영식, 이상정, 2015). 따라서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추정력과 대항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의 종류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보호되는 특수한 저작물로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물질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리가 제3자로부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면 양수한 자가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의 이용허락은 저작자가 아닌 저작권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물론 여전히 창작자는 저작자로서 또는 저작인격권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저작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성, 공공성, 유한성, 가분성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 '배타적인 지배권성'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공공성'이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 범위를 정하여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한성'이란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무한정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가분성'이라는 의미는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로 분류되며 각 권리를 분리해서 이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음악의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하고 양도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연하, 2018).

저작재산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인 경우 제한된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한미FTA 체결로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였다.

저작인격권은 지적재산이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한다는 특성 때문에 인격과 별개로 떨어져 존재하는 물적 재산권보다 한층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등장하게 된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신전속적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권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저작물을 매개로 한 음반, 방송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연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표 1>처럼 여러 가지 권리로 분류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복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OSP는 자기책임원리하에 직접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그 요건을 이행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상기 요건 이외에 관리자가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기한이 있는 유한한 권리(생존 기간을 포함한 사후 70년)이며, 타인의 허락 없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저작권도 베른협약과 WTO/TRIPs 협정의 3단계 테스트를 기준으로 동 법에 열거적 규정방식을 통해 저작권의 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발생 시 저작권자는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권리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으며,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민사적 구제로는 소송을 통해서 권리침해 예방, 침해 정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저작권법은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에 의하여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만약 침해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1-2.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저작물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한다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는 가능하겠지만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차단하게 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저작권법」 취지 역시 저작자의 창작을 통한 이익과 사회적 공익 간 균형 발전을 위하고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

〈표 1〉 저작권(저작권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매개자(저작권접권)의 종류와 내용

협약의 권리	종류	내용
저작권재산권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화 등의 방식으로 일시적,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예) 영상녹화, 이미지 캡처, 파일 다운로드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외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예) 영화관에서 영상 상영, 백화점에서 음악 재생
	공중송신권 (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수신이나 접근을 목적으로 유선/무선통신의 방식에 의해 송신하거나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예) TV 방송, 유튜브 방송, 음악 스트리밍 재생
	전시권	미술저작물, 사진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예) 미술관에서 그림 전시, 동상 전시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권리 예) 책 판매, 영화 DVD
	대여권	상업적으로 공표된 음반,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예) 상업용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래 저작물을 변형해 새로운 2차적저작물로 만들고 이용할 권리 예) 패러디 제작, 소설을 영화화
저작인격권	공표권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방법,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이나 공표 매체에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별칭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권리)
〈매개자〉		
저작권접권자	실연자	영화, 음악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연기, 노래로 보여주는 사람 - 실연(연기, 노래 등)에 대한 복제, 배포, 대여, 공연, 방송, 전송권 -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도 인정됨
	음반제작자	음반을 기획해서 만든 사람(예: SM, YG, JYP 등) - 음반(음원)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인 복제, 배포, 대여, 전송권 있음
	방송사업자	사업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예: KBS, YTN, tvN) - 방송에 대한 저작권재산권(복제, 동시중계방송, 공연권) 있음
	** (DB 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저작인접권에 준해 보호되는 권리임

*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 등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이 있음.

** DB의 경우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을 때에도 그 제작 및 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를 부여함.

*** 저작자는 자연인(작가, 작사가, 작곡가, 디자이너, 화가, 사진사, 설계사, 안무가, 프로그래머 등), 법인(단체, 기업 등)이 있고 다양한 저작물(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 저작물)이 있음. 권리구제 방식은 민사(손해배상, 금지명령), 형사적 제재, 행정적 구제 등이 있음.

물 혹은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산권을 제한하는 사례이다.

우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로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다.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저작권산권을 제한하는 사례로는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의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 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이다.

1-3. 공정한 이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 환경에서는 분초단위로 매우 방대한 분량의 저작물이 생산, 복제, 전송, 재생산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생산과 복제, 공정이용과 위법의 경계는 명료하지 않고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저작권법」상 공정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는 4가지가 있다.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영상에 충분한 추가 정보나 비평 등이 더해져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이 등록된 원본이 이용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 즉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전체 영상에 비해 극히 일부분(예를 들어 한 프레임 정도) 사용되었다.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상이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더 이상 저작물을 향유할 필요성이 없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사회성과 공공성 등 공익과 같은 일정한 경우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예외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정한 이용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보다 가치가 더 큰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면책 성격 가진다. 또 공정이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를 보장하여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비평하고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점에서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간의 충돌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절충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침해 사례

2-1. OSP의 저작권침해 개요

온라인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개인들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블로그, 카페의 게시판 운영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 웹하드 등 다양한 서비스 범위를 포괄하기도 하고 용어가 혼용되기도 한다.

통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1차 책임은 이용자들에게 있으나 이용 경로와 통로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매개의 간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이나 유통되는 정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가능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다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침해로 인한 손실의 현실적 회복이 가능해지고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SP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주게 되면 정보통신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모니터링하여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법적 책임 내용

(1) 저작권법의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는 미국의 DMCA를 참고하여 2003년 5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그의 책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의 침해사실을 인식하고 당해 정보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

이후 한·EU FTA, 한·미 FTA 체결에 따른 2011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제102조 제1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단순도판,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도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면책요건을 명확하게 하였다.² 또한 면책의 허용여부 및 범위도 기존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사항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책임이 면제됨을 명확하게 밝혔다.

1 오영우, 장규현, 권현영, 임종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보호 책임과 필터링”,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 2010. 12.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2012,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 매개자 역할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OSP 유형을 세분화하고 면책요건을 명확히 함.

나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음(「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다.

(2) OSP 유형별 면책요건

가. 단순도관(mere conduit) 유형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서비스하는 유형으로 인터넷접속서비스 유형이라고도 불리며 KT, SK브로드밴드 등이 해당된다.

〈표 2〉 OSP의 서비스 유형별 특징 및 면책요건

유형	특징	면책요건	사업자
단순도관 (인터넷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 통신을 하기 위해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콘텐츠 내용의 수정 없이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을 것 저작물과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반복침해자의 계정해지를 채택, 이행할 것 표준적 기술조치를 수용, 방해하지 않을 것 	KT SKB LGU+
캐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P가 중앙서버에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일정한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해서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단순도관 서비스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저작물 접근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만 캐싱 저작물 접근을 허용할 것 저작물 등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저작물 이용정보를 얻기 위해 업계에서 인정되는 기술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 본래의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는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호스팅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콘텐츠를 OSP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단순도관 서비스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 경우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것 침해행위를 인식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지할 것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검색도구를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을 것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 경우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것 침해행위를 인식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지할 것 	네이버, 구글, 메타 등

* 출처: 김용섭 2012, 오승중 2016, 이해완 2015.

나. 캐싱(caching) 유형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CDN, 캐싱서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 호스팅 유형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한 서비스 유형으로 저장서비스 유형이라고도 하며,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서비스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라. 정보검색도구 유형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해당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 유형으로 네이버, 구글 등 검색포털 사이트가 해당된다.

(3)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Notice & Takedown)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주장자로부터 권리침해 사실의 소명과 함께 중단을 요구받고 이를 중단시킨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OSP 중 단순도관(인터넷 접속)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순도관 서비스는 침해주장의 통지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복제·전송시킨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

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 특수유형 OSP의 의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진다. 이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온라인 매체에서의 침해 사례와 판례

3-1. 온라인상의 침해 개요

온라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했지만, 해외 서버를 통해 만화나 웹소설 등 콘텐츠를 무단 배포되는 사례가 늘고 해외 당국의 협조가 쉽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다른 지식재산권 범죄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침해 사례가 많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무단배포자가 많아 IP를 통해 배포자를 추적해도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에는 영화 등의 영상물을 무단 배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했으나, 최근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영상물, 사진, 만화, 웹소설 등의 무단 배포가 많아졌다.

「저작권법」 위반에 관련하여 2016년 이전에는 저작권 무단 배포자들이 국내 서버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클라우드플레어 등 해외 보안 서버로 사이트를 이전하여 국내 관할권을 벗어나 수사 역시 어려워졌다. 사이트 차단이나 폐쇄도 중요하지만 저작권 사범 등 인적 체포가 중요하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를 하려고 하여도 해외 보안 서버의 경우 해외 사법당국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설령 해외 서버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실제 주소를 특정한다고 하여도 해당 주소가 위치한 국가의 수사당국에서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등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급한 대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지만 온라인 특성상 대체 사이트를 수시로 만들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소설이나 각본, 논문 등의 어문 저작물부터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확장되고 있다. 서체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상담을 받는 경우 누군가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2.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침해 주요 이슈와 사례

유튜버 창작이 폭증하고 있다. 헬스, 게임, 교육, 역사, 연애, 기술, 영화, 여행, 캠핑, 먹방, 음악, 경제 등 분야도 다양하다.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적 영역에

서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출현하고 있다.

흔히 제작을 하다 보면 음악이나 영상, 사진, 효과음까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원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취미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콘텐츠를 게시하면 저작권이 발생하고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저작권 보호나 침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무심코 유튜브 영상 안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포함하거나 유포했다가는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범위는 음악, 댄스 영상 커버, 영화, 책부터 디자인, 폰트 사용까지 다양하다. 재가공하거나 MR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작을 식별할 수 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하나의 매체, 문화로 자리잡은 유튜브와 창작 콘텐츠, 파급력이 강한 만큼 창작자는 「저작권법」과 사례를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제작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 댄스 안무 커버 영상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따라 하는 영상을 커버 영상이라고 한다. 원작자가 있는 창작물인 만큼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모두 '저작권침해'이지만,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가수 손담비 씨의 노래와 춤을 따라 하는 5세 아이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부모, 걸그룹 시크릿의 춤을 가르치는 영상을 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한 댄스학원. 둘 다 '저작권 문제'로 법정까지 갔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를 허밍하는 게시물을 블로그에 게시했고 음저협은 네이버에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네이버는 저작권침해로 보아 게시

를 중단했다. 이는 소송으로 확대되어 법원은 저작권자가 중단 조치 전 취해야 할 저작권자의 귀책사유 4가지를 명시하였다.

- 1)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 필요
- 2) 공표된 저작물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 판단 필요(법 제28조)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하였다. 즉, 아이 영상의 경우엔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짧게 따라 한 영상인 데다, 무엇보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었다.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이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반면, 걸 그룹 춤 교육 영상을 올린 댄스학원에는 안무가에게 손해배상금 약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창작물인 춤으로 수익을 낸 것은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상업적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린 것이다.

■ 영화 리뷰 영상(속칭 패스트 무비)

시간은 부족하고 볼거리가 넘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영화 즐거리를 10~20분으로 요약한 유튜브 영상은 영화를 한 편 관람한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이처럼 영화 유튜버들의 요약 영상은 ‘가성비 좋은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시간을 아껴주는 효율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으나, 이 영상들은 저작권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튜브의 영화 재편집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인용의 수준이 저작권침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구독자

들이 작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수준과 정당한 비판이 있을 때 자유롭게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말을 포함하는 영상도 늘어나고 있다. 정보 제공 수준을 대체 관람으로 변질될 경우 실제 영상 관람 수요를 잠식할 우려가 있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영화 감상, 느낀 감정 등을 나타내는 ‘비평’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영화의 특정 장면 일부를 촬영, 이미지 캡처하여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에 해당한다. 반면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법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일본 센다이지방법판소는 2020년 11월 패스트 무비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3명의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20년 10월 도쿄지법이 패스트 무비를 제작한 20대 남녀 2명에게 5억 엔(약 48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모두 인용됐다. 이들은 50여 편의 영화를 축약한 영상을 게재해 저작권을 위반하였고, 이 영상으로 1,0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사법부는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했다고 판단했다.

■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게시물 저작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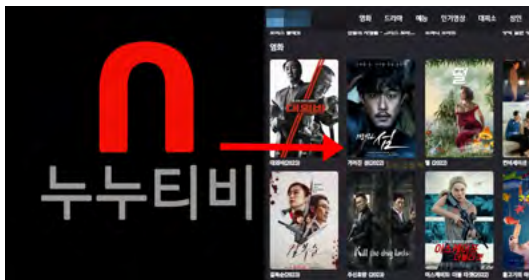
이외수 작가가 자신의 트위터 게시물과 수필집의 글을 토대로 전자책을 만들어 배포한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법원은 SNS 약관, 이용관행상 누구나 트위터 올려진 글 열람, 저장, 재전송할 수 있으나, SNS 공간 내에서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 한도 내에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트위터상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서울남부지법 2013.5.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라고 판결하였다. 결국, 출판사가 사과하고 해당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3. OTT 영상 저작권침해 사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왓챠, KT 시즌처럼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라고 부른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은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스포츠·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및 OTT 플랫폼 드라마와 영화를 무료로 불법 게시하여 서비스하는 누누TV라는 업체가 2021년 6월 이후 영상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초에는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글로리』, 『길복순』 등 최신 OTT 오리지널 콘텐츠와 국내 지상파·종편의 최신 드라마·예능프로그램·영화 등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TV)’에서 무료로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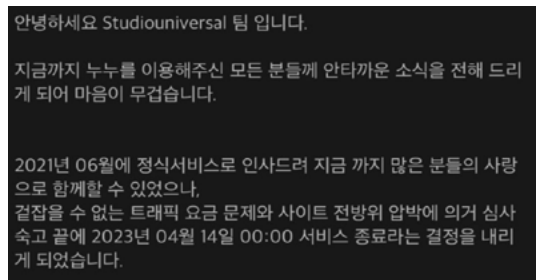


불법 무료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 업체 누누티비 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기존 유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과 화질에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홈페이지 역시 흡사 기존 OTT 업체처럼 구성해놓았다. 무료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

하고 대신 사이트에 각종 불법 스포츠 도박, 카지노 등 불법 시설 업체 배너 광고를 홍보하고 노출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조회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누누티비의 본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의 민형사법적 관할권을 벗어나 있어, 수사가 쉽지 않았다. 국내 당국에서 사이트를 차단하면 누누티비가 ‘누누티비1’ ‘누누티비2’ ‘누누티비3’ ‘누누티비4’ 등의 방식으로 URL의 숫자를 변경하여 회피해왔고 ‘누누 실시간 접속주소 안내’라는 팝업창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단에도 ‘접속차단에 관한 새로운 주소 대비 관련 안내’라는 문구 게시, 공식 주소 및 도메인 주소가 차단될 시 우회 경로를 안내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23년 3월 초, OTT와 방송사도 상황을 인지하여 ‘저작권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누누티비의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처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RL 차단을 강화하고 국회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3월 23일경, 누누티비 측은 국산 OTT/오리지널 시리즈 전반을 삭제한다고 공지하고 해외 자료들은 그대로 유지했다. 관련 정부부처, 수사기관, 영상업체 등의 다각적이고 전방위적 대응으로 2023년 4월 14일경 누누티비는 시즌 1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라지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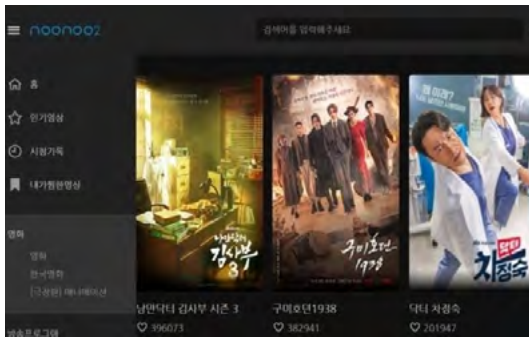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공지 이미지

그러다가 2023년 6월경 국내의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누누티비’ 시즌 2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4월 14일 ‘누누티비’가 서비스 중단 선언 이후

약 2개월 만에 등장한 대체 사이트로 볼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OO티비’, ‘OO무비’ 등도 있지만 누누티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누누티비 시즌 2는 홈페이지에 “에티오피아에 설립한 무료 OTT”라며 “기존 누누티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고 과거 누누티비와 유사하게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였다.



누누티비 시즌 2 서비스 종료 안내 게시물



불법 무료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업체 누누티비 시즌 2 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3』, tvN 『뽕뽕 지구오락실 2』, 넷플릭스 『사냥개들』 등 최신작 TV 프로그램,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등 최신 영화도 불법으로 제공하였고, 상단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노출하였다. 과거 누누티비처럼 누누티비2도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인터넷주소(URL)가 차단되어도 도메인 변경 등 주소를 공지하고 운영을 지속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을 했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과 협력하여 불법 서비스 차단 주기를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불법 사이트 탐지·대응이 인력 투입에 기반한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인공지능(AD)을 활용해 자동으로 신규 및 대체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고 채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누누티비 시즌 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과 함께 하루에도 접속 경로(URL)를 여러 차례 차단하겠다고 2023년 6월 18일 발표하자, 19일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사진 참조).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6월 22일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시즌 2’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누누티비 시즌 2에 대해서는 “이미 차단된 사이트(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접속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URL)만 변경하고 있는 저작권침해 대체 사이트”라고 지적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OTT가 글로벌 OTT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만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과 공급에 쓴 비용을 보면 티빙은 2021년 707억 원에서 2022년 1,169억 원으로, 웨이브는 같은 기간 1,452억 원에서 2,11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OTT 기업 웨이브, 티빙, 왓챠의 영업손실 규모는 각각 1,217억 원(2021년 558억 원), 1,192억 원, 555억 원이다. 이처럼 불법 스트리밍 영상 시청이 창작자와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책, 사이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와 아울러 불법 사이트 영상을 보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시청 시에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불법인 걸 알면서도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면 불법행위 방조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해당 콘텐츠들을 다운로드한 다음 타인이나 다른 사이트에 배포·업로드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AI와 챗GPT에서 저작권

4-1. AI와 저작권

자율성을 가진 AI가 스스로 창출한 지식·정보·기술·사상·감정표현 중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AI 지식재산권이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인간의 창작·발명품만 보호하고 있으며, AI 창작·발명의 경우 관련 내용이 없다.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은 1998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컴퓨터에 의해 생산된 창작물은 작품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사람이 저작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창작된 해로부터 50년으로 정해서 일반 저작물과 구분하고 있다(이승선, 2016·최재원, 2017). 미국에서는 저작자를 인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체제이다(최재원, 2017). 일본의 경우 사람이 주체가 되고 인공지능이 도구로 이용된 경우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보다 짧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재원, 2017).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내용이나 인정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간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방식과 구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조연하, 2018).

유럽연합위원회는 컴퓨터를 도구로 만든 저작물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이용자가 저작자

라고 해석하였다. 즉, 로봇의 특정한 법적 지위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제3자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때 전자 인격을 적용할 것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최재원, 2017).

인공지능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논의는 우선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또는 법적 성격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 추론을 할 수 있다. 즉, 객체였던 컴퓨터 시스템이 인공지능이란 이름으로 행위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했다(손승우, 2016). 둘째,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물성 또는 저작권 성립 요건이다. 즉,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창작한 뉴스, 음악, 방송프로그램, 소설 등의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창작성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의 관여형태, 인공지능의 이용형태,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 유형에 따라 저작물 성립요건을 어떻게 논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 창작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쟁점은 저작자를 누구로 볼 수 있는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넷째, 인공지능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에서 다른 저작물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의 기능을 하는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조연하, 2018).



4-2. 오픈AI 챗GPT와 저작권

오픈AI 챗지피티(Chat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진화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AI(인공지능)이다. 오픈에이아이는 2018년 최초 버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부르는 대형 언어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2022년 11월 GPT-3.5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 챗지피티를 공개했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인공지능(AI)의 저작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저작권 관련 쟁점은 크게 2가지 정도 지적된다.

우선 인공지능(AI)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저작권침해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챗GPT는 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등의 어문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들 중 일부분만을 교묘하게 조금씩 모아서 창작할 경우 저작권침해 사실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 언론사 기사가 대량으로 무단 도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크롤링(인터넷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다 쓸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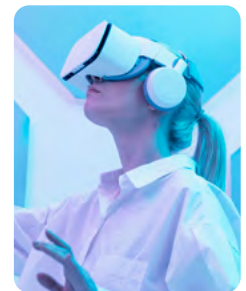
두 번째 쟁점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저작물의 보호 문제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오픈AI는 챗GPT 외에도 '달리(Dall-E)'라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 생성 AI들의 저작권 위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 밖에도 오픈AI와 '깃허브'가 만든 '깃허브 코파일럿'도 소송을 제기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는 대화형 AI코딩 모델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많은 개발자들이 공유한 오픈소스들을 사전 학습해왔다. 그런데 오픈소스를 만든 개발자들이 '깃허브 코파일럿'이 자신들의 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I와 오픈 AI의 발전과 파생되는 빛과 그림자를 잘 살펴보고 유용한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용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제23권제4집(2012)
- 류종현, 뉴스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2015)
-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제3호(2016)
-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제9판, 세창출판사(2015).
-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2016)
- 이승선,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와 각국의 대응, 관훈저널, 통권 제139호(2016)
- 이해원, 저작권법, 박영사(2015)
- 조연하, 미디어 저작권, 박영사(2018)
- 최재원,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1권1호(2017).
- 한국저작권위원회, 트위터와 저작권에 관한 검토, 저작권 동향 제13호(2012)



메타 사피언스 경영학 박사

메타 사피언스(Meta Sapiens)는 온라인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경험했다.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탐구해왔으며 IT기술과 법제도, 인간의 심리와 욕망을 통합적 시각에서 탐색하는 '사이버 공간의 관찰자'이다. metasapiens11@google.com

아직도 논문때문에 고민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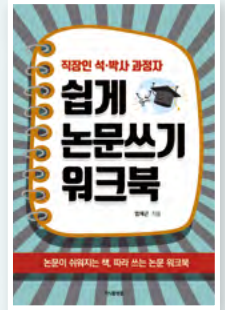
직장인 석·박사 과정자 쉽게 논문쓰기 워크북

논문이 쉬워지는 책,
따라 쓰는 논문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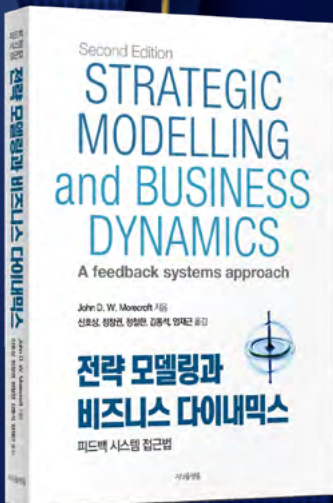
- ★ 논문이 뭐지?라고 남들에게 묻지도 못하고 있는 분
- ★ 논문은 써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 ★ 교수님께 설명을 들어도 논문이 도통 이해가 안가는 분
- ★ 읽어야 할 논문은 쌓여 있는데 읽어도 답이 없는 분
- ★ 논문에 막혀서 졸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
- ★ 제목도 정하지 못해 몇 달 동안 교수님께 연락도 못하는 분
- ★ 투고도 못하고 논문만 몇 년 동안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
- ★ 논문에 대해서 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찾는 분
- ★ 인생에서 논문을 최초로 써보고자 결심해본 분
- ★ 논문쓰기 스테디를 만들고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분

논문에 관해 설명하는 책들은 시중에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쓰기 연습을 하도록 돕는 책은 없다. 이 책은 쓰기 연습이 부족한 직장인 석·박사 과정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고, 시간이 부족한 연구자에게 맞춤형 전략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논문의 기본 개념 이해부터 논문 제목 정하기, 목차 잡기, 논문쓰기, 학술지 선정과 투고, 심사결과 통보 및 대응, 게재되기 까지 논문의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담고 있다.



전략 모델링과 비즈니스 다이내믹스

★★★ 피드백 시스템 접근법 ★★★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피드백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법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기업, 정치, 군사,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환경, 사회, 산업 전반에 걸쳐진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시나리오 모델링은 현상을 예측 가능하게 하며 전략적 사고를 갖게 한다.

저자 John Morecroft는 런던 경영대학원에서 다양한 시스템사고 및 전략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 책이 해당 수업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야의 교과서로 명성이 높은 만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책이다. 영어 원문으로 일부 대학원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 번역본이 나와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공부하고자 하는 국내 독자들에게 쉽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전략 모델링 교재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John D. W. Morecroft 지음 | 신호상, 정창권, 정철한, 김동석, 엄재근 옮김

과연 다양성이 창의력을 발휘할까?

이종구

이제까지 다양성의 문제는 대부분 인종이나 성 차별에 의한 갈등 해소 등 사회 윤리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관심을 받는 주제가 있다. 그것은 ‘과연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더 창의적일까?’이다.



이 질문에 여러 학자가 실증 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특히 엘리와 토마스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인상적이다.¹ 그들은 다양성을 통합-학습의 관점(Integration-and-Learning Perspective)이라는 이론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조직 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인력들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기고, 서로 간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통하여 학습을 촉진한다는 관점이다. 그리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전략을 만들어 비즈니스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즉, 통합-학습의 관점은 다양성이 기업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창의적 변화를 일으키고 지속적인 학습효과와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꽤 있다.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문헌이나 연구 결과, 특히 기업 조직의 다양성과 창의적 성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² 실제로 기업들은 창의력이나 혁신이 경쟁우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공감은 하지만, 선불리 다양성으로 무장된 조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다양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충돌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 장시간 토론에 의한 시간 부족 등, 여러 갈등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하버드 경영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다양성과 창의력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³ 다양성과 창의력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요건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창의력과 실행력은 다르다. 즉,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과 실행하는 것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경영 연구소에서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108개의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했는데, 다양한 배경이나 능력으로 구성된 팀을 핵심 연구나 아이디어 창출에 활용하면 확실히 성과가 좋았다. 반면에

1 “Cultural diversity at work: The effect of diversity perspectives on work group processes and outcomes”, Ely, R. J., & Thomas, D. A., 2001,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6, 229-273.

2 “When member homogeneity is needed in work teams: a meta-analysis”, Bowers, C. A., Pharmed, J. A., & Salas, E., 2000, Small Group Research, 31(3), 305-327.

3 “Does Diversity Actually Increase Creativity?”, Tomas Chamorro-Premuzic, Harvard Business Review, 2017. 07.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다양성의 팀은 내적인 갈등과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실행조직은 주로 시간과의 싸움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단합 의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둘째, 다양성의 리더십은 필수적이다. 필자는 여러 사례를 통해 다양성의 실현은 탑-다운(Top-down)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양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전략적 리더십에 활용하면, 창의적인 조직은 물론, 수준 높은 기업문화로 발전하면서 기업가치가 확대될 것이다.

셋째, 극단적 다양성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연구에서도 극단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팀은 확실히 조화가 어렵고 심한 갈등을 겪기가 쉽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적절할(Moderate) 정도의 다양성이 오히려 더 나은 창의력을 보여준다고 한다. 경영의 원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이익과 비례한다 하여 극단적인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암흑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보자.

넷째, 깊은 수준(Deep level)의 다양성이 핵심이다. 보통 다양성을 논의할 때 주로 인종이나 성별, 나이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속성들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창의력에 깊이 관계된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 심리학적인(Psychological) 속성이 강하고, 필자는 그것을 깊은 수준의 다양성인 가치적(Value) 다양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즉, 사람마다 지닌 고유한 개성이나 가치관 또는 능력 등이 가치적 다양성에 해당한다.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이 겉모습과 같이 정형화되고 탐색이 쉬운 반면에, 깊은 수준의 가치적 다양성은 사람 개개인이 지닌 가치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창의력에는 핵심이 된다.⁴ 결국 창의적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겉모습보다는 보유한 기술, 능력, 가치관, 배경 등이 다양한 인력들로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종구, 『다양성 전략』, 서울경제경영, 2016

다섯째, 지식 공유의 문화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다양성의 팀을 구성한다 해도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소용이 없다. 학술적으로 이것을 ‘다양성 환경(Diversity Climate)’이라고 정의하는데, 즉 ‘직원 개개인이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팀에 통합되었다는 인식’을 말한다.⁵

마지막으로,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이다. 최근 기업에서 실시하는 다양성 교육은 다른 코칭이나 리더십 같은 전형적인 교육과는 다르다고들 말한다. 특히 냉소적이거나 무뎠직한 직원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아마 다양성의 주제가 아직까지는 신선하고 일상의 문제이면서, 주로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 등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다양성을 잘 활용하면 분명 높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특히 실행력 보다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업무에 적절 수준의 다양성 팀을 구성하면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탑-다운의 리더십으로 다양성 환경, 즉 지식 공유의 문화를 조직 안에 잘 조성하면, 그것이 경쟁력이고 결국 다양성의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5 이종구, “다양성 수준과 다양성 통합 전략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3, 서울 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이종구 경영학박사

전자공학도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거쳐 노키아,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에서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다. 이어서 글로벌 IT 기업인 ‘NICE’와 ‘제네시스 코리아’에서 한국 지사장을 역임한 IT 전문가이다. 한편 경영학을 수학하면서 ‘다양성(Diversity)’을 처음 접하고 다양성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아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2015년에 기업 전략서인 『다양성 전략(Diversity Strategy)』을 발간하고 2019년에는 다양성 칼럼집인 『다양성 시대(Diversity Era)』를 발간하면서 다양성 설파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HI-AI & Computing) 산학협력교수로 재직중이다.

자폐성장장애인의 disorder의 원인

강은희



Autistic Spectrum Disorder(자폐성장장애)라는 용어에서의 disorder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자폐성장장애(Autistic Spectrum Disorder)라는 용어에서의 disorder(지시거부)의 의미를 알기 위해, 왜 disorder(지시거부)인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자폐성장장애인의 disorder(지시거부)는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폐성장장애인은 왜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있을까? 그들이 듣고 싶은 것

이 따로 있는 것일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폐성장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강은희, 2022)¹를 통해 살펴보자.

자폐성장장애인은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 집중하느라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놓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상

1 강은희(2022)의 박사논문(강남대학교)을 발췌 및 일부를 재구성하였다.

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 집중하느라, 누군가의 요구에 반응할 기회를 놓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그들의 disorder(지시거부)는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자폐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폐성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 집중할 때 알 수 있다. 자폐성장애인이 듣고 싶은 것은 그들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서 기인하며 그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폐성장애인이 보이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자폐성장애 당사자의 disorder(지시거부)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에피소드 1

쓸데없는 말을 안 하려면 잘 들어야 해.
(2020년 2월 11일 일화)

선생님 : 쓸데없는 말을 안 하려면?

아 동 : 생각해서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 : 그냥 생각만 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아 동 :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잘 대답해야 돼.

선생님 : 잘 대답하려면 어떻게?

아 동 : 똑바로 대답해야 돼.

선생님 : 땡.

아 동 : 머릿속으로 생각을 잘해야 돼. 맞아?

선생님 : 땡,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잘 들어야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거야. 대답을 잘하고 싶어?

아 동 : 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를 물어보시나 잘 들어야 해.

선생님 : 네가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한 것은 뭐야? 뭘 안 했어?

아 동 :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 : 땡.

아 동 : 미안해요.

에피소드 1에서 쓸데없는 말은 아동이 자신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에 집중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아동은 “원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를 물어보시나 잘 들어야 해.”라며 스스로 해답을 말하고 있다. 아동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생각하느라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아동의 disorder(지시거부)는 자기 생각에 빠져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안 들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못 들었다면 반복해서 말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안 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서 말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 아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선생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에피소드 2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 제대로 안 들어서 몰라요.
(2020년 11월 4일의 일화)

선생님 : 왜 똑바로 얘기 안 했어?

아 동 :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선생님 :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좋니?

아 동 : 싫어요.
 선생님 : 그런데 왜 모르는 척했어?
 아 동 : 그 얘기가 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했는데
 그런데도 했어요.
 선생님 : 뭐가 하기 싫을까?
 아 동 : 어려운 문제가 하기 싫어서.
 선생님 : 하기 싫은 거야, 모르는 거야?
 아 동 : 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선생님 : 엄마가 알까, 모를까?
 아 동 : 엄마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다~ 알아요.

선생님 : 삼년고개 얘기해 줘.
 아 동 : -----, 제대로 안 들어서 몰라요.
 선생님 : 왜 제대로 안 들을까?
 아 동 : 어려워서.
 선생님 : 하기 싫어서 어려운 거네?
 아 동 : 제대로 안 들었어요. 제대로 안 들었어요.
 선생님 : 왜?
 아 동 :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선생님 : 그럼 듣고 싶은 것 들은 것 얘기하세요.
 아 동 : -----

「삼년고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나서,

선생님 : 삼년고개 이야기 듣는 동안에 무슨 생각
 했니?
 아 동 : 판 생각.
 선생님 : 무슨?
 아 동 : 생각나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
 선생님 : 그래서, 제대로 안 들은 거 맞네. 어떻게
 할 거야?
 아 동 : 처음부터 제대로 들을 거야.
 선생님 : 제대로 안 하는 게 재미있구만.
 아 동 : 재미 하나도 없어요. 칭찬받고 싶어.
 선생님 : 칭찬받게 잘해야지.

에피소드 2의 핵심 내용은 선생님과 수업에 참여하
 는 아동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선생님의
 언어 지시 및 대화의 내용 전체를 제대로 안 듣는다는
 것이다. 이 아동이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처음에
 「삼년고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아동은 “제대로
 안 들어서 몰라요.”라고 하였다. 그래서 재차 「삼년고
 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다시 물었다. 아동은 “판
 생각”을 하느라 이번에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하였
 다. 처음부터 잘 들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듣
 기 싫은 것,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일부러 안 듣고 있었
 다는 말이다.

아동은 「삼년고개」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아동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비
 장애인의 시각에서 아동이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이해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그 시
 간에 아동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는 아동과 대
 화를 이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렇듯 자폐성장애 아동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누가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아동이 하는
 말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동에게 그 대화
 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위의 2가지 에피소드는 그렇게 순간순간 아동의 말
 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대화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대화하기를 멈추게 된다면 아
 동은 즉시로 그 상황을 자기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개시
 할 것이다. 아동과의 대화 시 미처 아동의 말의 의미
 를 파악하지 못해 아동이 자기가 원하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관심과 활동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
 은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이
 전의 상황으로 쉽게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이유
 로 그들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disorder(지시거부)를
 order(지시따르기)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말을 못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의 차이는 무
 엇일까? 못 들은 것은 들으려고 해도 그 내용을 알 수

가 없는 것으로 듣는 능력(disability)의 문제이고, 안 들은 것은 귀를 막고 스스로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뜻으로 의지(disorder)의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듣기를 다음과 같이 '귀에 들리다(hear)', '귀 기울이다(listen)', '반응을 보이다(response)', '시키는 대로 하다(obey)'의 4단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장애인의 disorder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폐성장장애인의 disorder는 듣기의 첫 단계인 타인의 말을 듣지(hear)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듣기의 첫 단계인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학습장 면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폐성장아 아동의 disorder(지시거부)로 인해 안 듣는 것은 아동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동의 마음을 바꾸어 order(지시따르기)로 수정할 수 있다면

듣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능력의 유무보다는 의지의 문제인 경우가 더 희망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아동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구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selforder(자기 생각 점검하기)를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강은희 사회복지학 박사
호호알멘토 원장
강은희 사회성발달연구소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이사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장

경기도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자문위원
한독교육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학습하는 조직」 저자 “피터 센게”, 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줄리아 마틴 르페브르”, Global Footprint Network 설립자 겸 CEO “매티스 웨커나젤” 등 글로벌 명사들이 추천하는 통찰의 책”

시스템사고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플레이북

게임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해시켜라!

인류의 이기적 행동으로 경제 성장에만 주력하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구의 생태계 시스템에 폭염, 한파, 홍수 등으로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깨달은 저자들은 악순환의 인과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독자들이 시스템사고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기후변화 위기의 탈출을 위한 지혜를 얻게 한다.

데니즈 메도즈, 린다 부스 스위니, 질리안 마틴 메허스 지음 | 정창권 옮김

초고령사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영기

고령사회의 민낯

우리나라는 6·25 민족 전쟁의 아픔을 딛고 전국이 폐허가 된 가운데서 50년 만에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고도의 압축성장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과 이득을 주었지만, 빛에 그림자가 따르듯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도 남겨주고 있다.

잘 갖춰진 의료시스템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연결되는 의료보건 시스템은 선진국도 부러워할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평균수명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본 예상수명이 백 세를 넘기기 시작한다.

또,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교육비, 생활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필연적으로 결혼·출산·육아 모든 제반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도록 올려놓았고, 결국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이제는 인구감소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그 사회에서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1.3%였으나, 2020년에 15.7%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비율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사회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35%를

넘어서 인구 3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사회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치달으면서, 이미 지하철은 좌석에 20%를 노약자석으로 마련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하철은 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서서 눈치를 살핀다.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은 아침마다 고령 환자들이 북새통을 이룬다. 대부분 퇴행성 만성 질환자들로 관절, 류머티즘으로 정형외과를 찾고, 소화장애에 기관지가 안 좋아 내과, 이비인후과도 복잡거린다. 아침마다 마치 학교에 출석하듯, 지난밤 통증과 불편함을 달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순례하는 것이 매일매

일 중요 일과가 되어가고 있다.

필자가 사는 과천지역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수년째 이름을 올리고 있고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은퇴 후 주거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주변 관악산 청정수 계곡에는 맑은 물이 사철 흐르고, 탁 트인 서울대공원 둘레길은 산책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노후 주거지로 인기를 끌면서 서서히 과천의 인구가 총 77.7천 명 중 65세 이상이 14.27%를 넘어선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노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시니어들을 위한 인문, 문화, 사회봉사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곳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점심은 유명 케이터링 업체 공급을 받아 2,000원에 제공하는데, 인기가 좋아 주중에는 식수 인원이 1,000명에 이르기도 한다.

곳곳에 산재한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서비스 차들이 바빠 오가는 것을 보면 재가보호를 받는 고령자들이 꽤 있음을 짐작케 한다.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학창 시절에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주로 국어, 영어, 수학에 치중하였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대부분 사회와 과학에 치중한다. 경영, 기술, 제조, 유통 등 대부분의 직종은 물론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경영자들도 대부분 사회와 과학에 기반을 두지 않는가?

그러던 것이 은퇴를 하면서 관심 분야는 점차 음악, 미술, 체육 활동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복지관도 이런 흐름에 맞춰 노래교실, 악기 연주, 서예, 디자인, 요가에 각종 레크리에이션 등 음악, 미술, 체육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일부 지역에 제한돼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지역들이 이런 혜택

에서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많은 지방 소도시들은 인구 감소로 행정지역 존폐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들의 통합이 시작되었고 통합 지역의 명칭을 놓고 갑론을박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장수지역으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많은 지방 마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셔터 스트리트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예전에 활성화되었던 동네에서 상점들이 셔터를 내리고 문을 닫는 집이 늘어나면서 생긴 신조어라고 한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의 존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퇴행성 증상들은 외부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미 보험재정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저항도 거론되기 시작한다.

소통의 불화는 세대 간, 가족 친지 간 갈등을 부추기는데, 특히 고령가족의 재산분배로 가족 친지 간 불화가 늘어나고 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미리 재산을 물려준 노부모의 노후가 불행해지는 사례는 종종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이제 이런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빨리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다른 나라 일, 남의 가정일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우리 모두의 당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화 추이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811만 1,415명으로 전 인구의 15.7%에 해당한다.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 기준을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이 추세는 점차 빨라져 2030년에는 24.3%로 높아져 초고령사회가 된다. 즉,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 된다고 한다.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45%가 증가한 수치이다.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들은 청소년세대 육성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실제 출생아로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인구는 매년 고작 27만 명이다. 하지만 65세를 넘기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인구는 해마다 무려 80~90만 명이나 된다. 만일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면 오히려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은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대략 3,588만 1,000명으로 28.7%를 구성하고, 고령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증가율의 25%를 차지한다고 한다.

다른 국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독일은 22.5%로 높은 수준이나, 미국은 이민자 덕에 16.5%, 신흥국인 중국도 12.6%로 아직은 낮지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장벽

대체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보는 사회적 시각은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분위기보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부담존재로 자리매김하지 않나 걱정스러워진다. 늘어나는 의료, 보건, 간병 및 노약자 지원 인프라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담론이 편치 않은 이유다. 이런 추세에 대해 미리미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적 부담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국가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형편상 노부모들의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시설에 모시기 위한 가족 간 대화는 편치 않다. 실제 당사자인 부모들도 강요되는 환경변화가 달갑지 않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 되고 있다. 외부 도우미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편 고려장이 아닌가 의심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을 설득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일상 사회속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시스템을 못 따라가는 한계는 여러 가지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다. 대체로 고령자에 대한 동정과 이해심 많은 시각으로 조명하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화 사회에서 대다수의 노약자들은 소외되기 십상이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자.

키오스크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대다수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젊은 구매층의 기호에 맞춰 키오스크를 입구에 놓는다. 중간에 노인이 끼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많은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서 휴대폰, 키오스크 사용법을 강의하지만, 이론과 현장은 여전히 다르다.

주문 앱

일부 가게에서는 아예 모든 주문을 휴대폰 앱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고객은 그 시간에 맞춰 출구에 가서 픽업하면 서로 시간과 공간을 줄일 수 있다. 그 앞에서 멀거니 기다리는 노인들은 대기표가 다 지나도록 기다려야 한다. 청와대가 개방되자 온라인 예약은 자정을 넘기자마자 매번 꼭 차면서 예약 전쟁을 치렀다. 과천 현대미술관 이견희 컬렉션도 매번 빛의 속도로 신청해도 안 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광클릭 세대도 못 하는데 노약자들에게 기회가 닿을 리 없다. 그런데 청와대는 65세 이상은 정문 앞에 가면 주민증 확인하고 바로 입장 가능하다. 디지털 시대에 노약자들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배려이다.

노인운전

운전미숙으로 차 사고가 나는 경우는 흔하지만, 언론이나 미디어는 노인들의 사고에 예민한 관심을

보인다. 기술 발달은 자율주행으로 치닫고 있지만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지레 고위험군으로 예단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노약자 보호석

지하철 내 좌석은 3인석 4개, 7인석 6개로 54석이 표준이다. 즉, 노약자 배려석은 22%로 높지만, 실제 이용인구 중 노약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충남 온양 신창역에서 강원도 춘천역이나 양평 지평역까지 쾌적한 냉난방 서비스 속에서 이동이 가능하니, 낮 시간 동안 철로(路) 거처(居處)를 즐기시는 路居者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리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경로우대로 어르신을 보면 발딱 발딱 일어나던 아름다운(?) 관습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차라리 의자 겸 지팡이라도 들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전과 기회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성장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고비용 사회로 치달으면서 국가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고령화가 또 다른 사회성장 기회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고령사회가 가져다줄 성장동력을 찾아보자.

고령자들의 주요 관심은 무엇보다 건강관리일 것이다. 따라서 건강 및 의료서비스는 고령사회의 필수 산업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원격 진단 진료서비스는 가정 내 스마트 생활가전과 맞물려 시장확대가 기대된다.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들은 이미 심

장, 혈압을 수시로 확인해주고 기록 및 관리해주고 있다. 만성질환인 당뇨와 부정맥도 전문 주치의와 연결되어 수시로 데이터를 통한 원격검진과 치료관리가 일상화되어 간다. 정부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국민건강시스템에 연동되는 스마트시계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지 않은가? 고령자를 필두로 전국민의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고령화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관절, 척추, 혈관 등 각종 퇴행성 질환들은 데이터 공유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의 관리가 국민보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스마트 안경, 보청기에 전기로 작동되는 보행보조 기구들은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심지어 시신경이 손상된 장애인에게 혀의 미각신경을 통해 사물의 형상 정보를 전달하여 물체를 인지하게 도와주고, 허리 보조기구 등 다양한 근력보완 기구들은 고령자들이 일상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을 대폭 늘려주고 있다.

좌변기로 대부분의 성인 만성질환 점검이 가능해지고, 침대에서는 수면상태, 심장과 순환기의 이상 여부가 즉시 전문 진료센터로 연결되며, 주방에서는 당뇨나 고지방 관리를 위한 식단과 칼로리 관리가 서비스 될 것이다.

고령자의 낙상이나 심정지 등 돌발상황은 실내 감지장치로 감지되고 즉각적으로 구급센터에 연결되며, 기침을 모니터링해서 기관지 보호나 폐렴 예방에 필요한 조치들이 연결될 것이다.

고령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고립에 따른 우울감이다. 가족들도 다 제각기 바쁜 삶을 사느라 노부모를 생각처럼 찾아뵙기가 수월치 않다. 자연 발길이 뜸해지고 전화도 멀어지기 마련이다.

대다수 노부모들은 종일 지내도 방문객이 거의 없고 전화 연락도 뜸하기 마련이다. 어쩌다 SNS가 와도 대부분 부고나 자식 혼사 청첩으로 마음은 있지만 막

상 나서기도 마땅치 않다. 뜬금없이 올려대는 보험판촉 전화가 그전처럼 성가시지도 않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잦은 만남과 소통으로 사회관계망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노인대학이니 노인복지관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고령사회 구심점이 되고 있다. 대부분 레크리에이션, 가벼운 생활체조, 음악 등으로 흥미를 돋우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어느 고령촌에서는 폐업한 파친코 업소를 개조해서 노인들이 모여 즐기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파친코와 유사한 게임으로 재미를 주고 건전한 사교장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이 인기를 끄는 다른 이유는 바로 운영방식에 있다.

노인들이 입장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본 지역 화폐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 게임 중에 화폐가 소진될 수 있는데, 이때 노인들은 다른 방에 가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보상으로 화폐가 공급된다. 즉,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해서 건강관리도 도모하고 게임으로 재미를 통해 소외되지 않고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유지하도록 배려하는 이 모델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집에 머물면서 혼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제품이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로봇 완구이다. 인공지능이 가미되어 상황별로 노인의 심리상태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화로 자연스럽게 소통을 통해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줄여주는 이 장비도 인기를 모은다.

여기에 가족이나 친지의 목소리, 대화 방식 제스처 등을 모방한 대화형 로봇이라면 훨씬 현실감 있고 심리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닥치면, 이 로봇이 구급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과 병원에 공유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은퇴 후에는 국·영·수나 사·과

보다 음·미·체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색소폰, 전자 오르간, 기타 동아리 등 다양한 음악활동이 활발해지고 서예, 미술, 사진 등 미술 관련 취미활동도 동호인 모임이 찾아진다. 정기적으로 전시회나 공연을 하는 실버 동아리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도 든다. 골프, 테니스에 산행, 자전거 동호회도 신규회원 모집에 바쁘다.

다만 이 모든 취미 활동들은 시간, 공간, 체력적인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유독 전자오르간(또는 전자키보드)은 시공간, 체력한계와 무관해서 점점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가장 나중에 개발된 전자악기로 각종 편의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심야에도 연주가 가능하고 수백 가지 악기에 다양한 특성의 밴드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혼자서 7080 가요 팝송은 물론 경음악에 라틴, 댄스곡까지 연주하는 즐거움을 준다고 한다. 무엇보다 전문 피아노 레슨 없이 노래방 기기처럼 간단한 조작법으로도 멋진 곡 연주가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공간,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 고령자들의 반력기로 대중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고령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낙상이다.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화장실에서 넘어져 안타깝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령자 집안의 인테리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느끼게 된다. 즉, 심미 위주의 인테리어에서 낙상을 예방하고 손쉽게 손이 닿는 동선관리로 효율적인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기능 위주의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주요 동선에 핸드레일과 손잡이를 설치하고 화장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설비도 필수이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말로 작동하면 도움이 되고, 긴급상황을 감지해서 구급요청을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재산 상속, 분배도 예민한 이슈이다. 사실 노부모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재산은 노부모 소유이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좋은 뜻은 종종 도토리 키 재기식 재산 다툼으로 그 빛이 바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자식들에게 무조건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 자식들의 생존경쟁력을 높이도록 교육과 마중물

만 지원하고 남는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나은지 등등 각자의 선택이지만 사회적 담론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이루기 위해 대부분의 부모들은 근면 검약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 고도성장을 넘어 풍요로운 사회에서 자식들에게 근면검소를 바라기는 어렵겠지만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공동사회 인식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어쨌든 세무, 법무, 회계, 경영 등 상속 관련 후속 사업들에는 기회다.

최근 대학생 동아리 중심으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식단으로 잡곡을 배합해 주문배달하는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당뇨환자 등 관리 식단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 소화기능이 약해진 노약자들의 건강 식단관리도 인기를 모으는 것을 보니 시장확대가 유망해 보였다.

사회적 인식 제고

이처럼 우리 모두가 겪어 보지 못한 고령사회를 맞으면서, 보다 큰 틀에서의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느껴진다. 즉, 현재처럼 출산율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줄어들고 의료, 인프라 등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 재원을 만성 질환 고령환자들이 과거보다 더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까?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지하철 등 각종 공공재의 무료사용이나 할인 특혜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춰 지방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사용 혜택도 고려해야 하는가? 도로, 보도, 계단 등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에서 역동성과 활동성을 표방하는 세대의 기호에 맞출 것인가?

이동성이 급격히 저하된 노년층에 맞출 것인가? 모든 키오스크 옆에 사람이 별도로 서비스해야 하는가?

주요 공공시설마다 아동복지 시설은 있지만 노인복지 시설은 드물다.

자식들이 맞벌이로 출근하는 동안 노인 홀로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기보다, 아동과 함께 출근해서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모델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하철 역사마다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보인다. 출퇴근 혼잡 시에도 일부 공간은 동선에서 떨어져 있어 한가하다. 이런 공간에 노인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하면 어떨까? 꼭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낙인을 씌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고령사회 주역들이 모여 담론도 나누고 바둑, 장기 등 게임도 즐기고 음악이나 미술 활동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지하철역은 이동성, 접근성이 좋고 냉난방에 비바람도 막아주니 안성맞춤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

- 안내: M+V=P Biz Academy, 캠퍼스 케이에서 베트남 진출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s://blog.naver.com/josephyglee1>” 또는 인터넷창에 “이영기.블로그.한국” 입력



이 영 기

국립경제대학교 (NEU) 방문 교수
공유오피스 Campus-K 공동 창업
FPT School of Business, 객원 교수
josephyglee@gmail.com | kakao: josephyglee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의 단상: 애덤 스미스의 생각대로 애덤 스미스를 이해해보자

김 승 범



자본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시작을 물으면 보통 애덤 스미스(Adam Smith)를 떠올린다. 그가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마 ‘공급과 수요의 원리’를 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원리는 시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설명이고, 시장은 자본주의의 최소한의 충분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가 그런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로 보인다.

지난 6월 5일은 애덤 스미스의 탄생 3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로서 자본주의가 성립되던 초기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일원으로, 자본주의의 성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이다.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스승인 프랜시스 허치슨(F. Hutcheson)의 영향도 받았지만, 허치슨의 친구이자 애덤 스미스의 멘토로 불리는 데이비드 흄(D. Hume)의 사상으로부터 더 중요한 영향을 받아

서 흠의 사상이 애덤 스미스 사상의 중심을 이룬다.

프랜시스 베이컨(F. Bacon)으로부터 시작되어 존 로크(J. Locke), 흠과 애덤 스미스를 거쳐 존 스튜어트 밀(J. S. Mill)로 연결되는 영국경험론의 역사에서, 애덤 스미스는 철학사에서는 종종 거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후대에 미친 정치경제학의 영향과 거기서의 지위 때문에 사상사에서는 가장 높은 주목을 받는다. 이는 누구도 그가 철학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할 애덤 스미스가,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정치경제학자로는 잘 이해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철학자로서는 잘 이해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는 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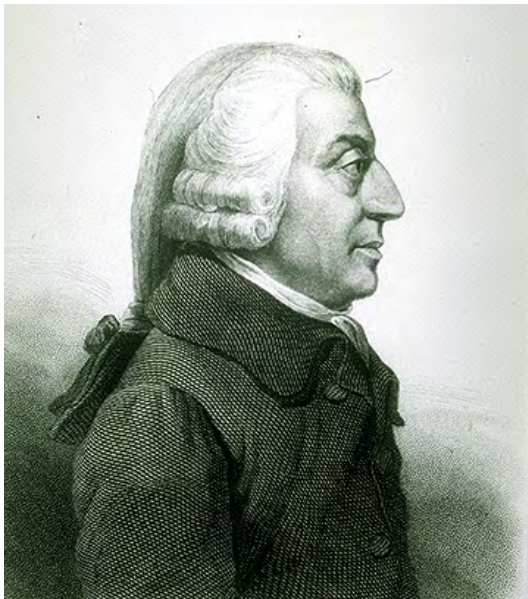
왜 애덤 스미스를 철학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것은 철학적 이해, 즉 애덤 스미스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가 생각한 방식으로 그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양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윤리학 이론을 주장하는 홍길동이라는 철학자가 그의 책에서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철저하게 그의 글만 이해하면 그는 양심을 인정하고 양심을 통한

윤리이론을 전개했다고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의 사고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가 사용한 양심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그의 철학적 사고에서 어떤 역할을 가진 개념이 아닌, 오직 일반인 독자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된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철학자 애덤 스미스의 생각의 결론이 자본주의라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의 글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생각이 걸어간 길을 잘 따라가서 종착점에 다다라 자본주의를 만나보는 것도 중요하다.

경영학에서 애덤 스미스를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경영학에서는 그동안 애덤 스미스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를 이해해야 할 아주 단순한 피상적 이유를 들 어보자면, 경영학 특히 윤리경영의 경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근거를 설명한 철학자이자, 동시에 『도덕감정론』의 저자인 윤리학자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 자체로 이미 윤리경영 연구에서 애덤 스미스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영학에서 애덤 스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윤리학과 경영학의 융합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윤리경영 연구 일반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첫째, 경영학자는 윤리학을 잘 모르고, 윤리학자는 경영학을 잘 모른다. 상호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방법이 극단적으로 달라 서로의 이해를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영학에서는 귀납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이나 통계분석을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 윤리학은 철학적인 연역적 추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논리(학)를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학의 글은 외관적 가치가 중요하므로, 타인의 논문 등에 기술한 용어의 외관만 믿고 그대로 자신의 연구 근거로 삼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윤리학자의 글을 인용하려고 한다면, 앞서 언급



한 대로 외관만 믿으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¹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홍길동이라는 윤리학자가 ‘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에 대해, 경영학자가 이를 참조하여 기업가의 양심 실재를 인정하는 윤리학 연구에 근거로 삼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양심’이라는 표현에 집중하여 “홍길동의 연구에 근거하면 윤리 경영 문제의 해법으로 기업가의 양심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연구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단순히 윤리학자가 쓴 글의 외관을 근거로, 이를 이해하고 인용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수준에서 철학·윤리학과 경영학의 융합연구로서 윤리경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경영학 입장에서 상상가능한 오류, 즉 경영학자의 눈으로 검토가능한 오류보다 훨씬 강력하고 다양한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² 애덤 스미스의 경우, 공감, 보이지 않는 손, 공정한 관찰자 등, 그의 윤리적 용어에 대한 다양한 경영·경제적 해석이 있다. 그중에는 철학적·윤리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도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앞서 설명한 문제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왜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이해해봐야 할 것이다. 그 전에 우리의 윤리 경영의 실상을 한번 되짚어보자. 경영자들 중에는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경영을 도덕적으로 하자.”는 모토 정도로 이해하거나, “경영학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그거 좀 하면 윤리경영 문제는 해결된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태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세금을 납부할 때,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내

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하면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은 피할 수 있다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보세요.” 정도의 태도라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다소 비난적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예를 들어, 오늘 도산할지 내일 도산할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의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 온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즉, 어느 기업이나 언제 윤리경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면, 이는 곧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모든 기업은 오늘 도산할지 내일 도산할지 모르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야 마땅한 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앞에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태도가 다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 내일 도산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최소한으로 면피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은 하루이틀 생명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는가? 그런 회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직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더 나아가 현실에서는 일단 윤리경영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등의 전술적 지도를 받아 그제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진정성!”을 외치며, 포장한 행동을 열심히 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추측컨대 윤리경영 문제가 쉽게 잘 발생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나는 사실 자그마한 윤리경영 문제는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세상에 알려질 만큼 큰 이슈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공개되면 항상 큰 이슈

1 실제로 철학자들 간에 인용은 용어의 언어적 동일성 등이 아닌, 개념의 동일성·유사성이나 논리의 동일성·유사성 때문인 경우가 매우 많다. 철학자들 간 같은 용어가 동일한 개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2 철학 용어의 외관에 관한 일화로 Law and Property라는 가제를 가진 철학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프리 리뷰 때, 사회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법률과 물권』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는 코멘트가 많아서, 결국 출간 때 제목을 수정했다고 한다. 원래의 철학적 의미는 『법칙과 속성』이다.

가 된다. 자연계에 비유하면, 대상포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면) 누구나 발병할 수 있고, 일단 발병하면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평소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고가의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개발되었고 현재 시판 중이다. 기존의 제품보다 예방률을 매우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TV 광고까지 진행했는데, 이 제품의 시판을 알고 이 주사를 맞기 위해 저축을 하는 등 재무적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영학 특히 윤리경영의 문제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윤리(학)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CSR이나 ESG 등의 영향으로 기업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거나 이미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CSR은 도덕적으로 좋다고 할지언정 윤리적으로도 좋다고 하기는 어렵고, ESG 역시 도덕적으로 좋을지는 모르나 애덤 스미스의 윤리, 즉 자본주의 윤리에는 잘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CSR이나 ESG가 기업을 윤리경영적으로 좋은 기업임을 필연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허울 좋은 포장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도 동의할, 자본주의의 핵심이자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인, '설명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도 동시에 항상 이윤을 추구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모든 기업이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CSR 위상과 ESG 위상으로 포장된 기업임은 자명하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해법이 필요한 지금이 바로, 다시 애덤 스미스를 이해해야 할 때라는 소소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00년 전에 태어난 애덤 스미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시장과 자본주의는 과연 이런 대안들이 적절한 것일까? 우리의 현실은 과연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물론 애덤 스미스가 살아서 지금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그래도 우리

가 발 딛고 살아야 할 것이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한 번 짚은 생각해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2023년 지금 우선적으로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이해해보야 할 우선적인 지점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비판들이 과연 애덤 스미스의 유산인 자본주의 자체를 유효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단지 현재의 몇몇 악덕과 악행을 비난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가 현재 자본주의의 핵심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나아가 현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본주의의 개선을 위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방식으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이해하기'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다. 윤리경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다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앞으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 조금씩이라도 함께 생각해보 수 있기를 바라며, 애덤 스미스의 탄생 300주년을 맞이해 이 점을 제언해보는 바이다.



김승범 경영학박사

경영학, 철학, 윤리학, 법학, 복잡계를 전공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음악, 사이버, 우주 등 전통적인 경영학을 넘어선 다양한 시공간의 산업을 연구
 현) 산업정책연구원 연구교수
 현) 주에스크 대표이사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CJ E&M/메조미디어 전략기획담당 부장
 저서: 「분석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빅데이터」(2015, 공저) 외 다수

세계일주기행: 유럽 편-영국을 가다

이규형



파리 CDG에서 Air France로 런던행

2022년 8월 21일, 영국 여행을 하기에 좋은 8월 하순이다. 런던에는 두 번째로 가는 사적인 여행이다. 업무상 출장으로 런던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바듯한 스케줄로 개인적인 여행처럼 도시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첫 번째 런던여행은 1991년 즈음으로, 시간과 비

용을 아끼기 위해 그룹투어에 섞여 간 적이 있다. 9일 간의 여유를 도는 여행스케줄은 딱딱했고, 더구나 런던의 체류시간은 턱없이 짧았다. 유럽대륙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로 런던에 머문 시간은 만 하루였다. 버스 안에서 런던의 명소 몇 군데를 스쳐 지나가며 인증사진을 찍는 주마간산 여행이었다. 지금도 런던의 물가는 불편할 정도로 비싸지만, 당시에 비싸기는 마찬가지였다. 런던에 도착한 첫

날, 저녁식사 후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한다며 올라 탄 버스는 어디론가 오랫동안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여행사에서 잡은 호텔은 런던 시내에서 외곽으로 한 시간 넘게 떨어져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다. 시내에 있는 호텔은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내 시간에 내 돈을 들여 왔으니, 내가 보고 느끼고 싶은 곳을 걸어보리라.

한국의 교과서에 실린 하이드 파크



변변한 사진도 없던 1960~7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에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런던의 하이드 파크(Hyde Park)라는 설명이 있었다. 조잡한 인쇄 품질의 흑백 사진으로 처음 만난 하이드 파크는 그렇게 가보지 않고도 익숙해진 지명이 되었다. 한국 사람으로 영국을 가본 사람은 많지 않아도 런던과 하이드 파크를 잇는 연관어 줄긋기 시험 덕택에 하이드 파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익숙해진 기억은 언젠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로 변하여, 오랫동안 기억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억에 의문이 들었다. 많은 나라에 수많은 공원이 있을 터인데 영국의 공원이 왜 한국의 교과서에 실렸을까? 그 의미가 자못 궁금했다.

하이드 파크, 시민사회의 상징

하이드 파크는 왕가의 사냥터이던 곳을 1631년에 찰스(Charles) 1세가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시민공원으로 탄생한 곳이다.

찰스의 아버지 제임스(James) 1세는 자신의 왕권이 하늘의 신으로부터 부여된 절대 권력이라며 소위 왕권신수설을 주장하고 의회를 부정했다. 아버지 제임스 1세의 전제 권력을 물려받아 폭정을 일삼은 찰스 1세는 결국 혁명 지도자 윌리엄 크롬웰(William Cromwell)에 의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폭군의 결정으로 하이드 파크가 시민공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지만, 하이드 파크와 함께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

시민공원이 된 하이드 파크는 390년간 런던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하이드 파크를 자주 거닐면서 소설을 구상했다고 한다. 한때 런던에 머물던 칼 마르크스(Karl Marx)나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 같은 공산주의 창업자들도 언론의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 이 공원을 자주 이용했다고 하니, 하이드 파크는 역사적 인물들의 사건현장이기도 하다.

19세기 중반 이후,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런던 시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하이드 파크는 대중 연설과 토론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런 전통은 연설자 코너(Speaker's Corner)에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일요일이면 하이드 파크의 북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스피커 코너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열정적으로 토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이드 파크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적 의미를 넘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긴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존재 의미를 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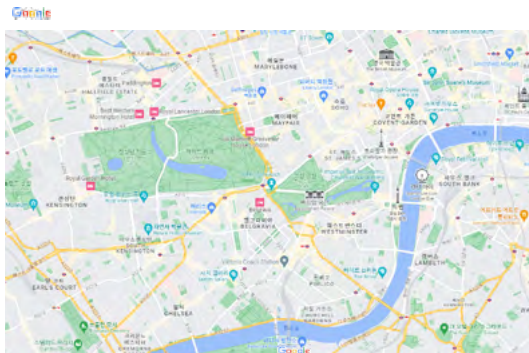
1960~70년대에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갓 20년을 넘긴 한국의 교과서에 하이드 파크가 소개된 것은 한 도시의 공원이거나기보다는 인류 역사에서 민주적 시

민사회의 상징으로서 갖는 의미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묵은 궁금증을 풀고 나니 평생의 숙제를 마친 듯한 기분이다.

하이드 파크를 거닐다

공원은 길게 조성된 서펜타인 호수(Serpentine Lake)를 중심으로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다. 동쪽으로 하이드 파크, 서쪽으로는 켄싱턴 가든(Kensington Gardens)으로 이어지는데, 경계의 구분 없이 하이드 파크로 불린다. 켄싱턴 가든을 합하여 하이드 파크의 면적은 2.5km²에 달하는 규모다. 잠실 올림픽 공원보다 약간 큰 크기이고, 여의도 공원의 열 배가 넘는다.



하이드 파크는 본래의 자연적인 모습을 유지하다가 1851년 박람회를 계기로 버킹엄궁전을 바라보는 자리에 퀸 엘리자베스 게이트(Queen Elizabeth Gate)를 새로 지어 동쪽 출입구로 삼았다. 공원 서쪽 끝에는 켄싱턴궁(Kensington Palace)이 있다. 교통사고로 죽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생활하던 곳이어서, 그녀를 기리는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이다.

퀸 엘리자베스 게이트를 지나면 입구에 샌드위치와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다. 카페를 지나 공원 안쪽으로 키 큰 가로수가 양쪽에 줄지어 서 있고, 사이에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길게 뻗어 있다. 비포장도로의

흙길 바닥을 보며 웬지 옛날 마차가 지나다녔을 때의 광경이 눈앞에 그려진다. 드넓은 공원은 잔디밭과 호수, 그리고 꽃과 식물을 주제로 한 정원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름답다. 가로수의 큰 키와 각종 식물이 어우러진 숲에서 공원의 오랜 역사가 느껴진다.

공원 가운데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는 서펜타인 호수에는 꽤 많은 오리 떼가 헤엄치고 있다. 호숫가에는 차를 즐길 수 있는 서펜타인 바 앤 키친(Serpentine Bar & Kitchen)이 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호숫가에 앉으니 갈대 사이로 흰 구름을 품은 하늘이 호수에 내려왔다. 이 아름다운 풍경과 여유를 함께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스친다.

홀로 여행객의 감상을 접고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돌린다. 점심 때쯤 공원에 들어온 듯한데, 어느덧 석양이 지고 있다. 공원을 즐기고 감상하는 데 여행객의 한나절은 짧다.



서펜타인 호수 옆 카페에서 바라본 풍경

버킹엄궁에서 웰링턴 아치로 가는 길

버킹엄궁 우측 벽을 돌면 공과 그린 파크(Green park) 사이에 컨스티튜션 언덕길(Constitution Hill)이 나온다. 길 끝은 하이드 파크의 동문인 퀸 엘리자

베스 게이트(Queen Elizabeth Gate)에 닿는다. 2차 선의 컨스티튜션 언덕길에는 조금 전에 버킹엄궁 앞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펼치던 기마병 행렬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귀대하고 있다.

언덕길은 마치 전사들의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덕길을 따라가면 오거리에 회전 교차로(Circle)가 있다. 공간이 꽤 넓은 서클에는 영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기리는 동상들이 서 있다. 서클을 가로지르는 중앙에는 워털루(Waterloo) 전투의 영웅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Arthur Wellesley, The Duke Of Wellington)을 기리는 웰링턴 아치(Wellington Arch)가 장엄하게 서 있고 아치에서 조금 떨어져 그의 동상이 있다. 웰링턴 공작은 워털루전투에서 나폴레옹 군을 격파함으로써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을 유럽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한 영국 육군의 영웅이다.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 함대를 격파한 지 10년이 지난 1815년의 일이다.



웰링턴 아치

웰링턴 공작의 동상 우측 그린 파크의 초입에 그리스 신전을 축소해놓은 듯한 건물이 눈길을 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폭격기 조종사들을 기리는 추모관이다. 눈을 돌려 왼편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신화한 포병 용사들을 기리는 조형물이 서 있다.



웰링턴 공작의 동상



전폭기 조종사 추모관



포병부대 용사기념비

가장 인적이 많은 곳, 왕궁에 가까운 곳, 가장 좋은 자리에 나라를 지킨 군인들을 기념하는 동상과 추모관을 세움으로써 이들의 헌신을 명예롭게 기리는 모습이다. 군인에게 명예만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지고의 가치임을 영국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영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가장 명예롭게 존중하는 정신에서 영국의 저력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명예롭게 대하는 영국을 보며 최근까지도 ‘천안함’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한국의 실상에 착잡해진다.

한국을 지킨 군인들을 기리는 동상은 어디에 서 있던가?

예나 지금이나 상무정신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국으로 만드는 기본임은 변함이 없는 진리다.

트라팔가르 광장에서 이순신을 떠올리다

트라팔가르 광장(Trafalgar Square)은 런던 여행의 중심이다. 트라팔가르 광장 북쪽엔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국립미술관)가 있고, 코벤트 가든

(Covent garden)도 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다.

좌우 대칭으로 지어진 영국 국립미술관의 앞마당이 트라팔가르 광장이다. 광장의 이름은 트라팔가르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여 붙여졌다. 광장 중앙에 분수대가 있고 분수대 앞에 4마리의 거대한 사자상이 떠받들고 있는 기념탑이 있다. 높은 기념탑 위에 한 인물의 동상이 서 있다. 그가 트라팔가르 해전을 승리로 이끈 호레이쇼 넬슨(Horatio Nelson) 제독이다.

트라팔가르 해전은 영국을 침략하려던 나폴레옹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이 프랑스제국 연합함대에 대하여 벌인 전투다. 해전은 1805년에 스페인의 서남쪽 트라팔가르곶 앞바다에서 벌어졌다. 넬슨 제독은 이 해전에서 함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략으로 프랑스 함대를 궤멸시켰다.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하여 프랑스군의 영국 본토 침공을 막아냄으로써 넬슨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영웅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트라팔가르 광장의 넬슨 제독 동상

넬슨 동상의 규모는 근대 영국의 역사에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없이 웅변한다. 탑 위에서 서서 웨스트민스터를 바라보는 넬슨의 모습이 광장 안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념탑은 높고 장대하다. 넬슨 동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념탑의 기둥 높이는 52미터에 달한다. 광장을 벗어나 멀리 떨어져야 기념탑과 동상의 전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영웅은 전장에서 죽는다(?)

넬슨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 저격수의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후에도 끝까지 지휘를 하다 숨을 거둔다. 그의 시신은 트라팔가르에서 가까운 영국령 지브롤터 요새로 옮겨졌다가 본국으로 이송되었다. 총탄에 맞은 넬슨은 “내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해준 신께 감사드립니다(Thank God I have done my duty).”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한다.

석양이 지는 트라팔가르 광장에 서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독전한 후 전사한 이순신을 떠올렸다. 트라팔가르에서 전사한 넬슨과 노랑해전에서 조선을 구하고 전사한 이순신이 겹쳐지는 것은 ‘전장에서 죽은 영웅’이란 공통점 때문일까.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는 이야기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트라팔가르 해전 이후 35년이 지나 영국은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소위 아편전쟁(1839~1842년)이다.

일본의 해군장교인 도고 헤이하치로(東郷 平八郎)는 세계 최강국으로 믿었던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해양 강국인 영국에 가서 7년간 유학하였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일본 해군의 영웅이 된 ‘도고’는 ‘일본의 넬슨’으로 불리었다. 주위에서 자신을 조선의 이순신에 비교하는 것을 듣고 도고는 “넬슨과 비교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순신 제독과는 비

교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진다. 아마도 도고에게 이순신은 나라의 도읍은커녕 온갖 모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투에 임한 지고충절의 인물이거나 더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신’으로 생각되지 않았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

1970년대 중등 교과서에 굵은 글씨체로 적힌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실린 것을 기억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나라의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었다.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부러운 어투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언젠가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듯했다.

그러나 막상 영국은 1970년대부터 심각한 영국병(British disease)에 걸려 나라 살림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다. 표를 의식한 노동당의 과도한 복지지출로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보다 실업수당을 받아 놀고먹는 게 낫다며 일을 하지 않았다. 당시 영국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은 독일의 25%, 미국의 50%에 불과했다고 하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병에 시달린 영국은 1976년에 IMF의 금융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 제힘으로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쓰러져 가는 영국을 구원한 지도자가 영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총리가 된 마가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다. 1979년에 수상직에 오른 대처는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영국병을 치유하고자 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인간을 노예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프레데릭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이론을 신봉한 대처는 과감하게 경제를 개혁했다. 개인의 삶은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했다. 사회복지 대상자의 심사를 엄격히 하여 영국병의 진원인 과도한 복지 혜택을 줄였다. 석탄 철강노조의 파업을 진압하며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마침내 대처의 강력한 리더십은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의 경제를 파국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

영국을 다시 일으킨 대처 수상의 자취를 따르고 싶었다. 대처가 다녔던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 갔다. 영국의 수상을 28명이나 배출한 이 명문 대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다. 천년을 지켜온 명문은 이름만으로도 인재 را 키워 내는 것 같다. 명문은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존감은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옥스퍼드 대학촌을 걸으며 명문의 분위기를 느껴보았다.

한국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명문을 부정하고 평등교

육을 지향하는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의 명문학교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 평등교육은 평등한 단계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므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처칠

날씨가 화창하여 영국 의회를 찾았다. 런던에서 드물게 만나는 맑은 날이다. 웨스트민스터를 둘러싼 길목마다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들이 가득하다. 영국의 사당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Parliament)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세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모두가 각자의 앵글로 햇살이 밝게 비친 아름다운 의회건물을 사진에 담고 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처음 인정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와 민주 의회의 상징인 웨스

트민스터는 영국인들의 자부심이다. 수백 년간 상원과 하원 모두 웨스트민스터에 의사당을 두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재건된 의사당 건물이 노후화하여 2025년까지 수리 중이란다. 의사당 안을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고딕양식으로 지어진 웨스트민스터의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먼 여행길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웨스트민스터 앞마당 맨 앞자리에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동상이 빅벤(Big Ben)을 바라보며 서 있다.



윈스턴 처칠의 동상

누구나 처칠을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의 전쟁 영웅으로 기억한다.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그런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보통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평화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 『제2차 세계대전』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노벨문학상이 주어졌단다. 노벨상위원회의 선정 이유와는 별개로, 처칠은 그의 어록으로

노벨상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 선사한 인물이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

영국은 민주주의의 발상지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과 체제를 고안해냄으로써, 지구상의 인간들이 왕이나 정복자의 노예로 살던 삶을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처칠은 말로 하는 정치를 잘 보여준 위대한 정치가다.

정치학자 함재봉 박사는 “대등한 자유인들로 하여금 나의 뜻에 따르게 하는 방법은 말을 이용한 설득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이 없으면 설득할 수 없고 설득이 없으면 정치가 불가능하다.”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처칠이 말 한마디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인 일화가 있다. 당시 전투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겁먹지 말게. 전쟁은 웃으면서 하는 것이야.”

처칠은 이렇게 말로 군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진정시켰고, 군인들은 다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론자인 체임벌린 전 수상이 야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총리직을 맡은 뒤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의회 연설을 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뿐입니다(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나는 ‘승리’라고 한마디로 말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의 길은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You ask, what is our aim? I can answer in one word: It is victory, victory at all costs,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 is no survival.).”

그는 연설로써 암울한 시대에 분열된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험난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었다. 전쟁의 공포와 실의에 찬 영국인들을 일으켜 세워 나치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함으로써 ‘말의 힘’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하다.

처칠이 민주주의에 공헌한 것은 말로써 정치의 격을 높였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품위 있는 말로 국민들을 통합하고, 미래를 여는 말로 희망을 주는 행위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과거에 매달리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패거리 모리배에 불과하다.

하루는 처칠이 의회에 출석해야 하는데 늦게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에 늦은 처칠을 비난했다. 처칠은 자신을 비난하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운 부인을 둔 사람의 고충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의회에는 폭소가 터지고 갈등이 사라졌다.

이런 의회 전통을 가진 웨스트민스터를 세계인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방문하고 나도 그들 틈에 끼어 있다.

축제와 휴식의 거리-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도심의 명소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든다. 런던 도심의 코벤트가든은 거기에 사는



타워 브리지

사람이든 여행자인 누구나 편안하게 찾고 싶은 축제의 거리다. 건물 안팎에는 재래시장의 정취를 풍기는 기념품점, 꽃가게, 의류상점, 과자가게 등 다양한 점포가 저마다의 색깔로 발길을 잡는다. 맑은 햇빛이 내리쬐는 파라솔 아래엔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대화가 떠들썩하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무 데나 걸터앉아 런던너(Londoner)처럼, 아니 여행객처럼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도시의 상징, 타워 브리지

템즈(River Thames) 강가를 따라 산책로를 걷다 보면 타워 브리지(Tower Bridge) 앞 광장에서 걸음을 멈추게 된다. 강변에 조성된 광장이 다리를 조망하

기에 최적의 장소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타워 브리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주변의 건물, 다리 아래를 지나는 키 낮은 배, 강물의 일렁임, 다리의 교각이 어우러져 이루는 풍경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그림엽서에 등장하는 런던을 상징하는 건물이 타워 브리지다. 가끔 런던 브리지로 잘못 불리기도 하는 타워 브리지는 다리라기보다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성의 출입구 같다. 누구나 다리에 오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매력이 넘친다. 1886년 당대에 최신의 기술을 종합하여 건설된 현수교이고, 다리 아래로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든 '열리는 다리(도개교)'다. 첨단 건축공법인 철골조 건축술, 산업의 원동력인 증기엔진과 기계기술이 총동원된 산업혁명기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영국박물관

도시의 상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런던(London)의 상징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리과 같은 기간시설을 기능뿐 아니라 공학적 장엄함이나 심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고민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기능만 있는 서울의 다리는 아무도 기념하지 않는다.

로제타석은 약탈한 것인가?

30년 전 처음 런던을 찾았을 때 엄청난 인류의 유산을 전시한 대영박물관(The Museum of The Great Britain, 당시는 그렇게 불렀다.)의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에 놀랐다. 다시 찾은 대영박물관은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으로 이름이 겹손해졌고 입장료는 여전히 무료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에 관람신청을 해야 한다.

영국박물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시품은 인류의 귀중한 유산으로 꼽히는 로제타석(Rosetta stone)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돌이다. 이 돌이 고고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보물로 평가되는 이유는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영국으로 옮겨 오기 전 로제타석은 크기가 1미터 정도의 돌에 불과했다. 고대에 만들어질 당시 이 돌은 도시에 세워졌으나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며 쓸모없이 버려졌다.

근세에 동지중해를 지배하기 위해 이집트에 진주한 나폴레옹 군대의 병사들이 요새를 증축하기 위해 나일 강변에 위치한 로제타시의 성벽 기초를 파던 중 우연히 돌(로제타석)을 발견한다. 프랑스 군이 이집트에서 영국에 패하자 조약에 따라 돌은 영국으로 소유

가 넘겨지게 된다.

1802년에 연구를 위해 로제타석은 영국으로 옮겨졌고, 드디어 그때까지 몰랐던 이집트 상형문자의 의미가 해독되었다.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형문자를 해독한 것은 후손인 이집트인이 아니었다.

영국박물관의 전시물들이 식민지에서 약탈한 것이라고 '영국 약탈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패자(loser)의 핑계를 대변하거나 결과적 비난일 뿐이다. 강자의 약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늘의 결과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려는 패자들의 자기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오늘날에도 이집트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가 방치되고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어떤 원주민들은 여전히 유적지 돌조각을 팔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동을 하여 로제타석이 발견된 강변의 담벼락 현장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 과연 그 돌이 보존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아마도 의미 없는 돌로 부서지고 버려졌을 것이다.

시인 김춘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다. 의미를 찾아내어 이름을 불러 주었기에 꽃으로 살아나듯이, 로제타석도 의미 모를 문자들이 새겨진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으나 끈질긴 노력으로 문자 해석에 성공함으로써 인류의 유산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규형 경영학박사
조직경영연구소 대표
기업조직경영 자문,
융합경영학회 감사



맞춤형 혁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공을 돕는 튼튼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onsulting

비즈니스 솔루션 도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상생협력 파트너십



Solution

R&D를 통해 도출한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Education

비즈니스 모델 실현을 위한 서비스 및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MatchBox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원천 데이터를
> 실시간 시각화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Green Nest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에너지
> 정보 분산처리 솔루션



 startrail

스타트레일 매거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진



“조직의 미래 비즈니스 성품이 좌우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성품은
모든 진정한 리더십의 기초이다.”

-John C. Maxwell -

“훌륭한 조직에는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문화가 있다.”

-Ray Dalio, 브릿지워터 CEO-

“우리는 지성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지성에 성품을 더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 Dr, Martin Luther King-

☎ ESG성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문의: 02-2242-2012



Good Character, Good Company
한국성품경영협회

“한국성품경영협회는 성품경영과 관련되는 융·복합 연구와 활동, 학술지 발간 및 인증제도 운영을 통하여 사회 속 다양한 조직에서 친환경, 사회가치 실현, 투명한 지배구조의 ESG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기관 등록번호 8B4727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코오롱사이언스밸리 2차 B101-218
카페 <https://cafe.naver.com/charactermanagement> 블로그 https://blog.naver.com/character_management
홈페이지 <http://kaocm.or.kr/> 이메일 character_management@naver.com 모바일 010-6839-4970